

이번 휴가, 여기 어때요?

한여름의 뜨거운 더위를 피해 많은 분들이 휴가를 떠나는 때입니다. 이미 휴가를 떠난 분도 있고, 아직 어디로 갈지 고민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아직 떠나지 않은 분들을 위해 대구, 이천여주, 청주, 김포, 순천경실련에서 추천하는 우리 지역의 명소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지역의 명소들을 보면서 마음에 드는 곳을 골라보세요!

먹거리, 볼거리 천국 대구 서문시장, 서문야시장



▲ 서문시장의 모습



▲ 서문야시장의 모습

대구 서문시장은 조선후기 삼남에서 가장 큰 시장이었다. 오늘날에도 주단, 포목 등 섬유제품과 다양한 먹거리를 중심으로 대구에서 가장 규모가 큰 재래시장으로 꼽히는 전국 3대 전통시장으로 통한다.

서문시장은 1지구, 2지구, 4지구, 5지구, 동산상가, 건해산물상가 등 전체 6개 지구 4,600여 개 점포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단과 포목 등 섬유 관련 품목과 한복, 이불, 의류, 그릇, 공예품, 청과, 건어물, 해산물 등 다양한 상품을 거래한다. 또한 돼지갈비찜 골목, 국수&수제비 골목, 거리의 노점들에서 판매하고 있는 잎새만두, 납작만두, 양념오뎅, 꼬마김밥 등 다양한 먹거리로 사람들을 이끈다.

늘 인파로 북적이던 서문시장은 저녁때가 되면 2차선 도로가 통제되고 다양한 음식, 물품을 파는 팔십여대의 리어카가 설치된다. 이러한 모습 또한 색다른 경험과 이곳에서만 볼 수 있는 나름의 볼거리다. 주말 평균 10만 명이 찾아온다는 서문야시장은 최근 모 방송 프로그램에 소개되면서 방문객이 많이 늘었다고 한다.

야시장이 준비되는 동안 댄스팀이 다양한 공연으

로 지루함을 매워준다. 댄스팀 공연시간은 오후 7시~8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공연한다고 하니 참고하면 좋을듯하다. 야시장에서는 치즈떡갈비, 카베츠 야키, 막창, 양꼬치, 우유튀김, 랍스타, 초밥 등 각종 먹거리 뿐만 아니라 캐리커처 코너와 방향제까지 다양한 물품도 판매하고 있다. 길 중간 중간에 테이블도 준비되어 구입한 음식들을 먹고 쉴 공간도 있다.

이렇듯 다양한 먹거리와 생활품의 천국인 서문시장, 서문야시장이지만 7, 8월 방문할 경우 대구의 무더위와 맞서야 한다.

- ★ 서문시장 운영 시간
 - 9시부터 21시까지, 상가 및 점포마다 차이가 있다.
 - 쉬는 날은 매월 첫째, 셋째 일요일
- ★ 서문시장 야시장 운영 시간
 - 3월~11월 : 일-목 19시-23:30 / 금-토 19시-24:00
 - 12월~2월 : 일-목 19시-22:30 / 금-토 19시-23:30

이천에서 만끽하는 여름 한나절
에스파크·민주화공원·테르메덴



▲ 이천 에스파크 모습

지난해 혹서의 두려움이 재현될까 걱정이지만 그래도 여름은 더워야 제맛이다. 하루쯤 부담 없이 더위를

피하고 의미 있는 여유를 만끽할 수 있는 곳으로 이천을 소개한다.

이천하면 우선 도자기와 쌀밥을 떠올린다. 두 가지를 함께 즐기는 방법이 있다면 더욱 좋겠다. 해가 중천인 더울 때를 피해서 오전에 도자기 구경을 추천한다. 2년 전까지만 해도 설봉공원 일대에서 진행하던 도자기축제를 이제는 도자예술 인들이 모여 사는 ‘에스파크’에서 개최한다.

이곳은 얼핏 보면 개성 넘치는 독특한 형태의 주택 단지로 보이지만 속내는 건물마다 갤러리 또는 공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전 도자기축제와 달리 향시 관람할 수 있으며, 골목골목 뛰어난 아웃테리어가 셔터를 자극한다. 물론, 저렴하면서 마음에 쏙 드는 생활 소품과 도자기도 살 수 있다. 골목을 누비며 도자예술에 심취하다 보면 출출하기 마련이다. 이쯤 되면 이천 쌀밥으로 미각 여행의 소소한 즐거움도 누리보는 것은 어떨까?

배를 넉넉히 채웠다면 <민주화공원>으로 자리를 옮겨보자. 민주화운동을 위해 헌신한 이들의 시대별 자료가 풍부하다. 초등생 이상의 자녀를 동반하면 매우 뜻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이곳은 워낙 냉방 시설이 좋아 해가 쨍한 시간에 방문해도 시원하다.

조금씩 지쳐갈 무렵이라면 귀가 전 독일식 온천 겸 물놀이 공원인 ‘테르메덴’을 방문하길 추천한다. 더위와 피곤함을 털어내고 귀가한다면 더운 여름을 이겨내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앞서 말한 이 모든 내용이 식당과 온천을 제외하고 모두 무료다. 비용은 무료지만 여행은 절대 무료하지 않기에 강력추천한다. 서이천 IC와 남이천 IC 주변이기에 접근성도 매우 편리하다.

디저트 도시로 급부상하다 청주 구도심 거리



▲ 청주 디저트 카페 거리와 디저트!



최근 몇몇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청주가 디저트의 도시로 소개되며 '인스타갬성'을 추구하는 젊은이들에게 핫한 도시로 부각됐다. 청주 디저트 카페 거리 중 가장 핫한 곳은 단연 북문로 구도심이다. 이 거리는 원래 쇠퇴 지역이었는데 작은 마카롱 가게가 하나둘 생기더니 지금은 타지에서도 올 만큼 유명한 거리로 변화했다.

컨셉도 다양하다. 대전에 성심당이 있다면 청주엔 '본정本情'이 있다. 그만큼 유명한 '본정 카페'는 청주 전역에 체인을 갖고 있다. 케이크 전문점이지만 커피도 전문점 이상으로 맛있는 'Anne 카페'도 구도심을 지키고 있다. 전국구 마카롱 가게 중 나름 이름이 알려진 '비올라'는 최근 확장 이전하여 고급스러운 유럽 살롱을 연상케 하는 인테리어로 리모델링했다. 한때 맘카페에서 입소문이 나 전국 체인화 된 '청주 오

플렛'도 구도심에 위치해 있다. 신선한 생과일이 한가득 올라간 타르트 전문점 '홍홍제과'도 빼놓을 수 없는 JMT²⁾ 카페다.

'청주 카페'는 매일 인스타그램에 하루에도 수백 개의 사진이 업데이트되는 핫한 키워드 중에 하나다. 저물어가던 구도심을 화려하게 부활시킨 디저트 카페가 개발정책에만 신경 쓰는 청주시 행정에 치인 소상공인들의 숨통이 되어주고 있는 듯하다. 부디 이 거리가 젠트리피케이션을 이겨내고 달달한 향을 유지하길 바라며, 경실련 부동산 개혁 정책은 오늘도 파이팅이다.

김포 운양동 생태공원 맛집 올갱이와 청국장



▲ 메뉴 : 직접 담근 청국장, 오리찜만두, 올갱이 해장국 등

김포 운양동 생태공원 에코센터 바로 옆에 있는 '올갱이와 청국장'을 소개한다. 간판에 올갱이가 먼저 나오지만 이집의 대표 메뉴는 청국장이다.

내가 김포에 들어온 20년 전 소개 받은 맛집으로, 청국장 맛이 입 짧은 나도 부담 없이 먹을 수 있을 만큼 깊고 구수하다. 청국장을 주문하면 청국장파와 함께 비빔용 대접이 나오는데, 청국장파와 두부, 각종 채소를 함께 넣고 고추장에 비벼 먹으면 맛이 한층 좋다. 특히 김포 금쌀로만 밥을 지어서 최고의 맛을 느낄 수 있다.

1) 인스타갬성: 인스타그램에서 볼 듯 한 감성적인 사진의 분위기
2) JMT: 신조어. '존맛탱'

세계 5대 연안습지 순천만 습지와 용산전망대



▲ 순천만의 풍경

전남 순천의 순천만 습지는 세계 5대 연안 습지 중 한 곳으로, 광활한 갯벌과 드넓은 갈대밭, 그 갯벌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철새 등이 유명하다. 순천만은 생태적 가치가 높아 습지보호지역, 명승 제41호로 지정되기 했다. 또한 국내 최초로 습지보호를 위한 국제조약인 람사르협약에 보호 습지로 등록되었다.

순천만을 둘러보는 방법은 생태체험선을 타고 순천만을 돌아보는 방법과 갈대밭 데크길을 따라 돌아보는 방법 등이 있다. 특히, 생태체험선은 습지 사이로 들어온 물길을 따라 순천만을 돈다. 순천만 생태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들으며 순천만을 볼 수 있고, 갈대군락지에 서식하는 철새와 물새들을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장점도 있다. 겨울이면 흑두루미, 재두루미, 노랑부리저어새, 큰고니, 검은머리물떼새 등 국제적으로 보호되고 있는 희귀종의 철새들이 순천만을 찾아온다. 농계, 칠계, 짱뚱어 등과 같은 갯벌 생물들도 서식하고 있어 갈대밭 데크를 걷다 보면 자주 발견되곤 한다.

갈대밭 데크길을 지나 산길을 따라올라 가면 낙조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는 용산전망대가 나온다. 순천만의 물이 빠질 때면 멋진 'S'자 수로가 드러나는데 용산전망대에서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할 수

있다. 갯벌 너머 산릉선으로 해가 떨어질 때의 풍경도 아름다워 전국에서 사진을 찍기 위해 많은 사람이 몰려들기도 한다. 갈대밭 데크길에서 용산전망대까지는 1.3km로 왕복 40분 정도 소요되고 평평했던 습지와 달리 산길을 따라 올라가야 하지만, 그리 가파르지 않아 누구나 쉽게 오를 수 있다. 순천만 습지와 용산전망대는 생태여행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꼭 가봐야 할 여행지이다.

대학로에 오셨다면 시원한 곳에서 책 한 권 어떠세요? 책방이음



▲ 책방이음 내부 모습

무더운 여름, 바다, 강, 산 어디도 가기가 힘들다면 대학로에서 시원하게 공연 하나쯤 즐겨보는 건 어떨까? 공연을 보러왔더니 시간도 남고, 마땅히 갈 곳을 못 찾겠다면 대학로에 있는 비영리서점 책방이음을 찾아보자.

책방이음이 경실련 회원에게 10%를 할인해 주는 건 안 비밀이다. 그리고 경실련 회원이 책을 사면 책값의 10%는 경실련에 기부도 되니 휴가도 즐기고, 책도 보고, 기부도 할 수 있는 좋은 장소다. 다음 월간경실련에서는 책방이음 대표가 추천하는 책 소개 코너도 만나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대학로에 온다면 경실련에도 들러보자(주말은 휴무이므로 참고하자). ☺☺☺

[현장스케치]

4차 산업혁명 시민포럼 아카데미

글·사진 정호철 재벌개혁운동본부 간사 hcjung@ccej.or.kr



● 7월 10일 진행된 강의 현장 모습

빅데이터, 블록체인, AI, 스마트 팩토리, 로봇, 자율 주행 자동차, 5G... 사회경제적으로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되는 4차 산업혁명은 새로운 기술의 혁신일까, 거대 기술 기업들의 종교일까? '4차 산업혁명'에 대해 적지 않은 시민들이 의구심을 품고 있다. 이것을 눈으로 본 적도 없고, 이것이 무엇인지 체감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불확실성의 시대 '4차 산업혁명'은 그 개념조차 명확하지 않다.

이에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는 콘라드 아데나워 재단(Konrad Adenauer Stiftung)과 함께 지난해부터 <4차 산업혁명 시민포럼>을 신설하여 교류·연구·교육해 왔다. 지난 2018년에는 사물 인터넷 기반의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독일 내 Industry 4.0 정책을 상호 검토하여 노동, 세제, 복지, 교육, 환경 정책의 필요성을 깨달았고, 한국의 진정한 4차 산업 혁명을 위해서는 많은 시민의 정책적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그리고 올해 우리는 그 연장선상에서 4차 산업혁명을 알리고 시민사회의 정책적 관심을 모으기 위해 <4차 산업혁명 시민포럼 아카데미>를 개설하였다.

총 7강으로 구성된 <4차 산업혁명 시민포럼 아카데미>는 현장 기술자들과 산업 종사자, 학계 전문가 등을 초청하여 현재 산업 현장에서 실제 4차 산업혁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의견을 공유해 봄으로써 향후 우리 사회에 필요한 정책대안을 이끌어내는 자리가 되었다. 이미 두 차례 진행된 강연에 약 80여 명의 회원과 활동가, 일반 대중들이 참석하여 많은 호기심과 우려의 목소리를 표했다. 독자 여러분도 강의 현장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함께 생각해볼길 바라며, 그날의 목소리를 함께 나누려고 한다.

“외국 A사가 종업원 채용의 공정성을 위해 AI를 도입했는데 그 AI가 유색인종을 차별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개발자의 일방적인 편견이 AI에 작용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이것을 막을 방법은 없는 건가요?”

“AI가 자의식을 가지고 스스로 진화할 수 있나요? 향후 그 단계까지 발전한다면 혹시 위험하지는 않을까요? AI의 기술규범이 필요한 거 아닐까요?”

“몇 차례의 산업혁명과 임금노동을 통해 인간이 먹고사는 것 외, 그들이 말하는 ‘4차 산업혁명’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적 가치가 있을까요? 말이 좋아서 플랫폼 노동이고 4차 산업혁명이지 3천 4백

만 명의 소외된 노동인구를 한곳에 모아 빅데이터로 그들이 영업하는 것 외 지금까지 무슨 부가가치 창출이 있었습니까? 특히 K사와 T사 말이에요. 플랫폼 사업자들은 독점 시장경쟁에서 이기면 결국 ‘스타’가 되지만, 나머지 3천 4백만 명의 노동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플랫폼 가사노동 시장이 등장하면서 플랫폼 제작자와 노동 제공자 간의 수익의 분배, 즉 수수료가 생겨났습니다. 대표적으로, K사는 자회사 C까지 만들어서 여성노동자들로부터 수수료를 빼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협동조합 시절에는 중개 수수료가 없었어요. 물론 영리 플랫폼 산업이 창출해내는 부가가치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하지만, 여성 가사도우미들에 대한 처우나 노동환경 등 그들의 삶은 왜 나아지지 않는 걸까요? 현재 국회에서 가사도우미들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는데, 한국당 정책위는 ‘기업이 그것을 왜 찬성하냐?’며 논의조차 안하려 하고 있어요.”

“플랫폼 공유경제를 통해 현재 우리 사회의 차별화와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을까요?”

“지금 정부에서 거대 기업들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컨소시엄 형태의 ‘스마트 팩토리 사업,’ 그런 관 주도 식의 혁신 개발사업이 과연 성과가 있을까요? 그게 지금 정부에서 해야 할 일인가요? 현재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은 새로운 기술의 혁신일까요, 새로운 종교일까요?”

이처럼 아카데미 참석자들 사이에서 많은 질문이 쏟아진 가운데, 4차 산업혁명의 불확실성 보다는 불공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무엇보다도 4차 산업혁명을 통해 혁신을 발명하려는 정부의 정책과 이를 소유하려는 기업들의 믿음 속

에 '사람'은 없었다. 오로지 혁신과 그들의 성공만 있을 뿐.

현재 <4차 산업 시민포럼 아카데미>는 다음달 8월 14일(수)일까지 계속됩니다. 다양한 주제에 관심 있는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

4차 산업혁명 시민포럼 아카데미

기간 2019. 7. 3 ~ 8. 14 매주 수요일 저녁 7시~9시
장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강당 (서울 대학교)

4차 산업혁명이 산업현장에서 실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봄으로써, 미래 우리사회에 필요한 정책에 대한 시민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공유하는 자리입니다.

- 모집대상 활동가, 그리고 **시민** 이면 **누구나** 참여
- 참가비 전액 무료
- 프로그램
 - 7/3 [개강] 전체 강의개요 소개
 - 7/10 [대담] 플랫폼 노동과 양질의 일자리
 - 7/17 [강연] 5G 이동통신의 숨겨진 잠재력
 - 7/24 [토론] AI 로봇 윤리와 기술의 도전과제
 - 7/31 [강연] 교육, 직업훈련, 산학협력의 현주소
 - 8/7 [견학] 4차 산업현장 방문 (견학 수행후 일정조정)
 - 8/14 [종강] 거버넌스 혁명, 참석자 종합토론

○ 참석신청 QR코드 스캔 또는 구글독스 등록
<https://forms.gle/8iQTTuX2UJ67XCLJ9>



공동주최
행사주관 **경실련 (사)경제정의연구소**
참석문의 **(02) 3673-2143**

참석자 전원에게 석식과 수로증이 제공됩니다.



참석 문의

경실련 사무국 02-3673-213~4 또는 hcjung@ccej.or.kr을 통해
회원님의 성함과 참석 가능한 일자를 남겨주세요.

[인터뷰]

화분안죽이기실천시민연합을 만나다!

정리 이성윤 회원미디어국 간사 pain2c@ccej.or.kr

수많은 촛불의 열망이 광화문을 가득 메웠던 2016년, 그 안에는 재밌는 깃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중에는 경실련의 깃발과 꼭 닮은 화실련이라는 깃발도 있었는데요. 3년이 지난 지금도 집회 현장에서 화실련의 깃발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특별히 올해로 3년째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화실련과 인터뷰를 진행해 보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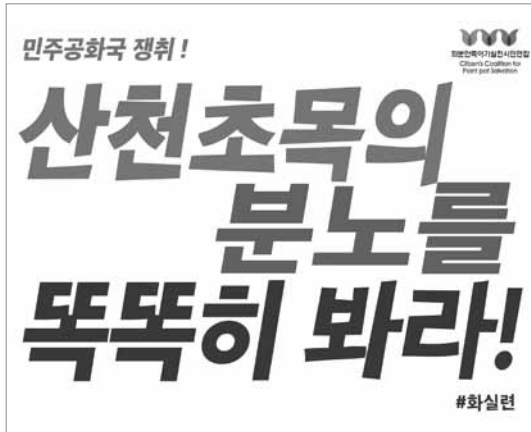
Q 우선, 독자분들에게 화실련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 경실련 여러분, 화실련 여러분, 반갑습니다. 만나게 되어 기쁩니다. 월간 경실련 지면에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화실련은 2016년 11월, 촛불집회의 물결과 함께 창립한 시민 연합입니다. 살려야 할 화분이 있다면, 차마 지키지 못한 화분이 있었다면, 우리 모두가 화분안죽이기실천시민연합, 화실련입니다. 어느 화분이든 허무하게 죽지 않는 세상. 그런 세상을 함께 만들어갑니다.

Q 2016년 촛불집회에는 ‘천하제일 깃발 대회’라고 할 만큼 다양한 깃발들이 나왔습니다. 당시에 같이 사진을 찍었던 기억도 나는데요. 화실련 깃발을 들고, 나오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이름을 화실련으로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100만 명이 모였던 3차 촛불집회(2016.11.12.)에 등장했던 ‘장수풍뎡이연구회’ 깃발이 촛불 집회를 수놓은 무수한 ‘아무 깃발’을 싹 틔운 씨앗이 되었습니다. 당시 집회 이후, 트위터를 중심으로 없을 법하면서도 어딘가 있을지도 모를 단체 깃발을 저마다 상상해보는 놀이가 한바탕 이어졌습니다. 온라인 공간의 전면실세인 고양이를 중심으로 ‘민주묘종’, ‘범야옹연대’, 이어서 ‘전국고양이노동조합’ 등이 앞서 나왔고, 당시 어용집회 비용지원 등 전방위 정권유착으로 헤드라인을 장식하던 전경련을 탄 ‘전경련’도 이에 맞서 등장했습니다. 이어서 ‘국경없는 어항회’, ‘범강총연대’, ‘허물없는 세상’, ‘얼룩말 연구회’ 등 다른 종도 깃발 아래 모였습니다. ‘무도본방사수위원회’, ‘마법소녀노동조합’, ‘전국디

바협회’ 등 좋아하는 대중문화 요소를 모티브로 삼은 깃발이나, ‘고산병 연구회’, ‘한국주사맛기캠페인 운동본부’ 등 당시 시국을 풍자하는 깃발도 등장했습니다.



● 산천초목의 분노를 담은 화실련

여러 단체가 ‘나라가 평안해야 동물들도 평안하다’는 기치로 등장한 한편, 약간 마이너한 허전함이 들었습니다. ‘화분의 여러 화초도 반려 생물이니 할 수 있지 않을까?’ 옛적에 폭정이 횡행할 때 ‘민초의 울분을 일러 산천초목이 분노한다’는 표현을 흔히 쓰이기도 했다는데,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 역시 산천초목을 분노케 할 정도로 가관이었습니다. 이런 연유로 산천초목의 분노 또한 똑똑히 보여주기 위해 ‘화분안죽이기실천시민연합’이 2016년 11월 14일에 창립되었습니다. 한국 사회를 위해 오래 힘써온 시민단체 중 진지하면서도 장황한 이름이 돋보이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의 이미지를 패러디하여 상징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Q 당시에 참신한 깃발들도 많이 나오고, 혼자 나오신 분들이 그 깃발들에 모여서 함께 다니기

도 하는 모습이 기존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풍경이었는데요. 실제로 깃발을 들었던 분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한 풍경이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A “깃발 내려!”하는 불멘소리로 대표되는 ‘집회 현장의 정치 혐오’, ‘순수 시민 콤플렉스’가 무색해진 순간이었습니다. 아무 깃발이 점차 거리로 나오고, 깃발과 섞여 함께 광장 위를 부유하기 시작했습니다. 7차 촛불집회(2016.12.10.) 즈음, 각지에서 나온 아무 깃발이 광화문 광장에 여럿 모여서 큰 대오를 이루어 행진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들이었고, ‘혼자 온 사람들’이기도 했지만 말없이 형성한 유대감을 현장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른 아무 깃발을 보면 환호했고, 서로 깃발 이름을 부르며 합류해 인파를 이루었습니다. 아무 깃발과 함께한 시민들과 기수단은 진지한 히어로 만화, <왓치맨>의 음울한 배경에 등장인물로는 코미디



● 2017년 3월, 촛불집회에서 만난 화실련과 경실련

만화, <킵에스>의 DIY 히어로를 슬쩍 데려 놓은 모습 같기도 했습니다. 당시의 묘한 연대감은 다시 찾기 어려울 듯합니다.

7차 촛불집회는 5차 페미존이 열린 날이기도 합니다. 광화문 지하 광장에는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한 농성이 진행 중이었고, 이순신 동상 앞에는 세월호 광장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항의하는 예술인 농성장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곳곳에서는 사전 집회 형식으로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모여 다양한 집회를 이어갔습니다. 10차 촛불집회(2017.12.31.) 때에는 본 집회 전후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만두노총 새우만두노조가 함께 주최한 ‘아무 깃발 대잔치’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물론 서울역 일대에서는 ‘계엄이 답’이라며 ‘관변’ 맞불 집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광장은 ‘대의’ 뿐만 아니라 다양한 관심사와 의제가 넘나들고, 이웃한 수십만의 ‘나’를 확인하는 공간이었습니다. 2016년 여름, 이화여대에서의 투쟁과 같은 해 겨울, 약 20주에 이르는 2016-2017 촛불집회 시기는 한국 사람들이 민주시민으로써 쌓아온 최후의 저력이 무엇이었는가를 눈앞에서 직접 확인한 때였습니다. 2017년 3월, 본무대에서 마주 본 수십만 시민들의 모습은 잊지 못할 겁니다. 전국 각지의 집회 현장에서 힘써주신 박근혜 정권 퇴진 비상 국민 행동 및 연대 단체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Q 사실 촛불집회 당시에만 스쳐 지나가는 깃발 일 줄 알았는데 요즘도 집회 현장에서 화실련 깃발이 보여서 아주 반갑습니다. 화실련이라는 이름으로 계속해서 활동하고 있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A 2016-2017 촛불집회 당시에는 깃발을 들 때마다 이번이 마지막이길 바랐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정권 퇴진을 이루길 촛불시민 모두가 염원했으니까요. 노란 리본 휘장과 2m 길이 깃발을 5m짜리 깃대에 매달고 집회에 참여하는 일은 물리적으로도 금전적으로도 힘든 일입니다. 아무 깃발과 함께 다른 집회 경험을 자아냈지만, 동시에 다른 곤란함도 따랐습니다. 많은 아무 깃발이 촛불집회 이후로 자취를 감춘 직접적인 이유가 아닐까 짐작합니다.

촛불집회는 승리 선언과 화려한 폭죽과 함께 끝이 났지만, 촛불집회를 통해 확인한 우리 사회의 과제는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변화를 위한 행동도 곳곳에서 계속되고 있고요. 화실련 깃발을 비롯한 아무 깃발을 만난다면, 승리의 경험을 상기하고, 기운을 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Q 촛불집회가 벌써 3년이 되어갑니다. 그동안 정권도 바뀌었고, 국정 농단 수사도 진행되고,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촛불 이후, 우리 사회는 조금 더 나아졌다고 생각하시나요?

A 국정 농단의 주역들이 내려오고 나서야, 세월호가 물 위로 올라왔고, 광장에서 물 대포와 경찰 차벽이 사라졌습니다. 하마터면 우리가 광화문 광장에서 육군 9공수여단과 30사단 장갑차에 깔릴 뻔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새 대통령이 당선되었고, 다른 전임 대통령 2인은 주소지가 바뀌었습니다.

국정 농단으로 무너져 내린 곳곳을 수습하는 일만으로도 힘에 부친다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제자리로 돌아왔을 뿐인 데도 대단한 진전인 것처럼

럼 감탄하고 그쳐버리는 모습은 아쉽습니다. 새 헌정까지 상상했던, '촛불 혁명'이라 부르길 주저하지 않는 1,600만 여 명의 시민의 노력이 다시 미완으로 끝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듭니다. 이는 화실련 깃발을 내리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입니다.

탄핵 인용 선고 후 8개월, 촛불 1주년 집회 현장에 참여했지만, 마음껏 기뻐할 수 없었습니다. 군부 독재 세력의 '세습 왕조에 분통을 터뜨리던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이 몇 개월 새 나서서 '어용'을 자처했습니다. 지난겨울 집회 현장에서 민주공화국의 회복을 바란 게 아니라 새 왕의 도래를 기다린 것뿐이구나 하는 허탈함 또한 우리의 몫이었습니다.

'꽃길'만 걸어서 마법처럼 적폐가 청산된다면 좋겠지만, 불가능한 일입니다. 국정 농단의 주조연과 그 후에 세력의 치열한 회방을 감안하더라도 헌정권은 적폐 청산 및 사회 개혁 의지를 그보다 더 빠르게 잃어가는 듯 보입니다. 특히 노동, 고용 분야의 퇴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최근 '버닝썬'으로 대표되는 권력유착 사건, 경찰, 검찰과 마약, 유혹업소 카르텔 진상 규명에는 사실상 손을 놓은 듯 보입니다. 2016-2017년의 촛불이 또 하나의 미완 혁명으로 끝나버리지 않도록 경실련과 화실련 여러분 모두 조금씩 힘을 기울여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Q 화실련은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하실 계획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화실련이 바라는 우리

사회는 어떤 모습인가요?

A 화실련은 올해로 3주년이 됩니다. 앞으로도 종종 집회 현장에서 화실련을 만나실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가깝게는 화실련 창립 3주년을 기념할 만한 새 기념 굿즈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면을 빌어 지난 시간 화실련 기념 굿즈를 통해 화실련을 후원해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화실련이 지치지 않고 남아있을 수 있었습니다.

화실련은 어느 화분이든 허무하게 죽지 않는 세상, 함께 민주공화국을 피워가는 사회가 되길 희망합니다. 살려야 할 화분이 있다면, 차마 지키지 못한 화분이 있었다면, 누구나 화분안죽이기실천시민연합입니다. 화실련 외에도 집회 현장을 찾는 아무 깃발들이 아직 남아있고, 새로이 아무 깃발을 드는 기수 분들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집회 현장에서 만나는 아무 깃발 모두에게 많은 성원 바랍니다.

Q 경실련이 올해로 30주년이 되었습니다. 경실련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A 경실련의 30주년을 축하합니다. 경실련은 잘 드러나지 않는 의제를 폭넓게, 꼼꼼하게 챙겨왔다는 신뢰가 있습니다. 디테일이 강한 시민단체로 한국 사회에서 꾸준히 역할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제정의, 사회정의 실현으로 적폐 없는 사회를 향해 우리 함께 나아갑시다. 고맙습니다. 🍻

[문화산책]

9회 말 투아웃, 달빛요정이 쏘아 올린 역전만루홈런

글 정택수 30주년기념사업국 팀장 wild@ccej.or.kr



● 달빛요정역전만루홈런의 1집 'Infield Fly'

바야흐로 한국음악의 전성기다. 가요는 이제 K-POP이라는 이름으로 미국 빌보드를 비롯한 세계 차트 상위권을 섭렵하고 있다. 세계 각지에서 열리는 K-POP 공연은 연일 매진 사례를 기록하고, K-POP 때문에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도 크게

늘었다. 몇몇 가수들이 유례없는 강력 범죄를 저질러 좋은 일과 나쁜 일이 뒤엉키긴 했지만, 모두 한국음악 판이 커졌다는 반증임에는 틀림없다.

하지만 한국음악이 언제나 지금처럼 잘 나갔던 것도 아니었고, 외양이 화려해질수록 한 번쯤 다른 이면들도 돌아봤으면 하는 마음이 자꾸 든다. 그래서 누구보다 화려하지 못했던 언더그라운드 가수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한다. 바로 이름도 유치찬란한 '달빛요정역전만루홈런'. 본명은 이진원이다. 그는 그저 음악이 좋아서, 음악으로 먹고살겠다는 일념으로 대형 기획사 주변을 전전하며 열심히 곡을 썼다. 하지만 연출도 없는 데다, 실력도 부족해서 하루 종일 야구방송을 틀어놓고 음악 작업을 하는 게 스케줄의 전부였다.

아무도 자기 곡을 찾지 않자 결국 자신이 가수가 되어 데뷔작이자 은퇴작을 발매하기로 결심했다. 음반을 내려면 많은 돈이 들기에 스스로 모든 걸 해내는 '가내수공업'식 음악 작업에 돌입했다. 마스터링과 프레싱을 제외하고 모든 작업을 해낸



● 달빛요정역전만루홈런 추모공연 포스터

덕에 앨범제작에 들어간 비용은 대략 600만 원. 앨범의 타이틀은 'Infield fly¹⁾'라 정했다. 어찌어찌 앨범을 만들기는 했지만 이걸 제대로 유통시키기란 더 어려운 일이었다.

한 웹툰 작가가 작품 배경음악으로 '절룩거리네'를 사용해준 덕에 앨범 판매도 반짝 상승세를 탔지만 그것도 잠시뿐. 또다시 1년을 허송세월하고 있을 때 기회가 찾아왔다.故 신해철이 DJ로 있던 라디오 프로그램 고스트네이션에서 '절룩거리네'와 '스끼다시 내 인생'을 소개해준 것이다. 청취자들의 반응이 폭발적이었던 덕분에 찍어둔 시디도 다 팔고 음

반회사와 정식계약을 맺어 재발매까지 했다.

좋은날도 잠시, 최대의 히트곡 '절룩거리네'와 '스끼다시 내 인생'이 모두 방송금지곡 판정을 받았다. 달빛요정 노래의 가장 큰 무기인 직설적인 가사가 독이 되고 만 것이다. 방송금지는 이제 막 날개짓을 시작한 가수에게 치명타가 됐다. 1집 만들 때 진 빚을 갚으려면 아직 멀었는데 좌절하고만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다행히도 그를 살려준 건 정부의 인디밴드 지원금이었다. 생활비는 어쩔 수 없었지만 음반제작비는 지원금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

1) 인필드 플라이는 내야 뜬공을 수비수가 잡기도 전에 심판이 아웃 선언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인필드 플라이처럼 자신의 삶도 이미 오래전에 아웃 결정이 내려진 것 같아서 첫 앨범명으로 삼았다고 한다.

열악한 장비에 부족한 연주 실력으로 만든 음악이었지만 진정한 가득한 가사와 절규하는 목소리는 팬들의 가슴을 울렸다. 달빛요정의 가사는 자신의 삶을 기반으로 친구들에게 들은 얘기와 상상력이 더해져 만들어졌다. 1인칭 시점으로 가사를 쓰다 보니 모든 게 그의 실제 경험인 것처럼 오해를 샀다.²⁾ 달빛요정의 삶이 결코 풍족한 것은 아니었지만 노래가사처럼 기타를 팔아 생계를 유지할 만큼은 아니었다. 사실 앨범을 내고나면 늘 새 기타가 그의 손에 들려있었다. 월 100만 원, 연봉 1,000만 원 수입이 안 되면 음악을 접겠노라 결심했건만 운명의 장난처럼 수입은 늘 마지노선을 넘지 않았고 음악생활도 계속됐다.

달빛요정도 자신이 불행을 팔아 돈을 벌고 있음을 인정했으나, 가사 속 주인공을 자신과 일치시켜 불쌍하게 쳐다보는 시선은 몹시 불편해했다. 달빛요정은 때론 사랑을, 때론 세상에 당당히 맞서겠다는 선언을 노래하기도 했지만 대중의 주목을 끈 것은 “세상은 내게 감사하라네 그대 알았어 그냥 찌그러져 있을게” 같은 패배감 가득한 가사들이었다. 하지만 달빛요정의 비굴한 가사에도 염세적이거나 공격적인 음악은 만들지 않았다. 그의 음악은 오히려 들국화의 ‘행진’처럼 삶을 향한 에너지가 넘쳤다. 음악의 긍정적 에너지는 절망적인 가사와 화학작용을 일으켜 비굴할지라도 굴복하지 않는 정신 승리, 때로는 희망을 느끼게 한다.

달빛요정은 꾸준히 앨범을 내며 나름 팬층을 구

축했고, 인디신에서 독보적 위치를 잡아갔다. 그러던 2010년 11월, 갑자기 달빛요정이 뇌출혈로 쓰러져 사망했다는 뉴스가 보도됐다. 그의 나이 38세. 병원 측은 그가 뇌출혈로 쓰러진지 30시간 이상 지난 후에야 발견된 것으로 추정했다. 가수의 인생은 자신이 부른 노래처럼 된다던데 그의 인생은 노래보다 더 외롭고 비극적으로 끝나고 만 것이다.

달빛요정의 비극적인 죽음이 알려지면서 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살아있을 때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졌다. 달빛요정 추모공연이 열리고 달빛요정의 곡을 모아 만든 뮤지컬이 제작됐다. 그의 죽음은 특히 예술인 복지에 대한 문제의식을 확산시켰고 예술인복지법이 제정되는 초석이 되었다.³⁾ 지금까지도 계속되는 추모 열기를 보고 있노라면 왠지 달빛요정이 인생역전만루홈런을 죽음으로 쏘아 올린 것 같아 안타깝기만 하다.

이 와중에 불편한 진실 한 가지는 예술인복지법이 수년째 시행 중이고, 예술인 복지에 대한 대선공약도 여럿 제시됐지만 이런 제도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이가 태반이라는 것. 대학로를 걷다 보면 예술가에 대한 보호와 복지가 시급하다는 벽보가 종종 눈에 띈다. 누군가의 죽음으로 어렵게 만들어진 사회적 변화지만 늘 미흡한 수준에 그치는 현실이 씁쓸하다. 달빛요정은 이제 가고 없지만 그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루빨리 시스템이 정비되길 바란다. ☹️

2) 달빛요정은 노래 ‘길동전쟁’ 중 “내 친구들이 전방에서 조국에 충성을 다할 때 나는 이름 없는 다방의 레지와 사랑에 빠져 있었네”라는 가사 때문에 정말 레지와 연애를 해왔다는 질문을 엄청나게 받았다고 한다. 하지만 들은 얘기를 토대로 만든 가사일 뿐 다방엔 몇 번 가본 게 전부였다고 한다.

3) 예술인 복지법 도입은 2011년 시나리오 작가 최고는 씨가 생활고에 시달리다 사망한 사건이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최고는 법’이라 불리기도 한다.

경실련과 함께 해주세요!

시민 여러분의 참여가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경실련은

- 정부보조금 0%, 회비로만 운영됩니다.
- 실현가능한 대안을 제시합니다.
- 땀 흘려 일하는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정의로운 민주공동체를 지향합니다.



경실련 회원이 되면

- 격월로 월간경실련을 보내드립니다.
- 회비는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SNS에서 많이 본 이슈

유튜브 콘텐츠 'We are 경실련'을 시작했습니다!

● 경실련의 이슈를 더욱 많은 분들께 조금 더 쉽게 전달하기 위해서 유튜브 콘텐츠 제작을 시작했습니다. 콘텐츠에는 활동가들이 직접 출연해 어려운 이슈를 하나하나 설명해드립니다. 제목은 'We are 경실련', 줄여서 '위.경.련'이고, 이제 3회까지 만들었습니다. 2주에 한 번 씩 제작 될 예정입니다. 아직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아직 못 보셨다면 지금 바로 유튜브에서 '경실련'을 검색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이해충돌방지 규정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것입니다

● 지난 6월 18일 손혜원 의원의 기소에 대한 경실련의 입장에 대해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경실련은 부패방지법 도입 시기부터 운동을 진행하였고, 이후에도 공직자 윤리 강화를 위한 운동을 지속해오고 있습니다. 현재 부패방지법, 공직자윤리법, 청탁금지법 등 공직자 윤리를 위한 다양한 법들이 있지만, 이해 충돌 방지 규정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이 생긴다면, 지금과 같은 이해 충돌 논란은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실련은 앞으로도 이와 관련한 운동을 지속해나갈 예정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을 믿어도 되나요?

● 경실련은 서울시 25개구에 있는 표준지 아파트의 공시지가와 시세를 조사하여 발표했습니다. 경실련의 조사결과, 국토부가 2018년보다 높아졌다고 발표한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오히려 더 낮아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토부가 이에 대한 반박입장을 내놓았지만, 그 어디에도 공시지가의 산정근거를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공시지가는 보유세, 건 강보험료 등 60여 가지가 넘는 행정 목적으로 사용되는 중요한 가격기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알려줄 수 없지만, 자신의 말이 맞다고 하면 누가 믿어 줄까요?

독자 여러분의 기고를 받습니다

사는 얘기, 궁금했던 사항에 대한 질문, 경실련 운동에 대한 의견, 「월간 경실련」을 읽고 느끼신 점 등을 자유롭게 적어서 보내주세요.

✉ 이메일 news@ccej.or.kr

📱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 withccej

☎ 전화번호 02-766-5627~5628





경실련 일일보고



경실련은 하루하루 시민과 함께 걷습니다

2019. 05.

- 05.14 [공개질의] 통일부에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 관련 공개질의
- [기자회견] 정부가 1천억 남긴다 발표했다던 판교 이익 6.3조 원
- [성명] 조달청은 위법한 조달행정 농단을 즉각 중단하라
- [성명] ILO 100주년 '핵심협약' 비준 캠페인 성명
- [토론회] 기업상속공제제도 바람직한 개정방향은?



- 05.15 [기자회견] 지금 당장 긴급한 복지·노동예산 확대를 요구한다!

- 05.20 [논평] 강원랜드 관련 대법원 판결은 거수기로 전략한 사외이사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어야



- 05.21 [성명] 무차입 공매도 방치로 외국인투자자 배물리는 금융당국은 제도 개선 약속 조속히 이행하라

- 05.22 [기자회견] ILO 핵심협약 즉각 비준 촉구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 [기자회견] 경기도는 불공정 공시가격 실태조사 및 개선에 적극 나서라



- 05.23 [성명] 감사원은 70조 세금 특혜, 불공정 공시가격 당장 감사하라

- 05.27 [기자회견] 삼성에 의한, 삼성을 위한 의료 민영화 재추진 규탄 기자회견

- 05.28 [기자회견] 과천 지식정보타운 분양을 중단하고, 관련자를 수사하라
- [논평] '인보사 사태' 식약처도 공범이다
- [토론회] 문재인정부 2년 농업정책 평가와 제언



- 05.30 · [기자회견] 박원순 시장은 토건세력 배불리고 상인 내쫓는 민간 재개발사업 중단하라
- [성명] 폭주하는 데이터 활용 정책, 개인정보가 위험하다
- [토론회] 상법상 자사주 문제 진단과 개선방안 마련 토론회



2019. 06.

- 06.03 · [보도자료] 내구연한 7.9년짜리 타워크레인, 정부가 20년으로 사용 연한 늘려줘
- [보고서] 경실련 2015-2018 ECOSOC 활동 보고서

- 06.04 · [논평] 자유한국당의 막말 정치, 총선에서 표로 심판받을 것



- 06.05 · [기자회견]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 완화 추진 규탄

- 06.07 · [기자회견] 피해자들·가습기넷 “환경부를 철저히 수사하라”



- 06.10 · [의견서] 20대 국회 특권 내려놓기 의견서

- 06.11 · [논평] 기업상속공제, 제도 취지와 달리 부의 대물림으로만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



- [성명] 이희호 여사의 별세에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 [행사] '재벌 체제 개혁을 위한 올들의 만민공동회'

- 06.12 · [성명] 새 검찰총장은 정치적 중립과 검찰개혁 의지가 강한 인물이어야 한다

- [의견서] 선거제도 개혁 추진 방향에 대한 정치개혁 공동행동 의견

- 06.13 · [논평] 자유한국당은 조건 없이 국회 정상화에 협조하라!

- 06.14 • [기자회견] ILO 핵심협약 조건 없는 즉각비준 - 선비준이 해법이다
• [카드뉴스] 의정은 나 몰라, 특권만 챙기면 되지!
- 06.17 • [기자회견] 국민 외면 파행 국회, 더 이상은 못 참겠다!
- 06.18 • [논평] 손해원 의원의 부패 방지 위반 혐의 철저히 따져 공직자의 부패 재발 막아야 한다
- 06.20 • [성명]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재정 지속 가능성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라
• [성명] 국회는 정개특위 활동기한 연장하라!
- 06.21 • [성명] 경제정책 기조를 바꿀 수 있는 기회마저 잃어버린 회전문 인사
- 06.24 • [기자회견] 15년째 조작하고 있는 공시가격제도 폐지하라
• [기자회견] 문재인 정부와 국회는 국민 건강 팔아넘기는 의료 민영화 중단하라
- 06.25 • [성명] 국토부는 변명 대신 공시가격과 시세반영률 산정근거부터 공개하라
- 06.26 • [기자회견] ‘인보사 사태 해결과 의약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민대책위’ 출범
- 06.27 • [성명] 정개특위는 패스트 트랙 지정 선거법 의결하라!!



2019. 07.

- 07.01 • [기자회견] 10년 임대주택 불공정약관 공정위 심사청구
• [논평] 남북미 정상외 역사적 만남을 환영한다
• [보도자료] 자동차 레몬법 시행 6개월, 아직 10개 수입차 브랜드 수용 거부
- 07.04 • [토론회] ‘혐오 표현 시대의 임시 조치 제도 개선방안을 논하다’



07.05

- [기자회견] 공직자 공개 재산, 시세의 국토부 57.7%·인사혁신처 52.1%에 불과

07.09

- [기자회견] 과천시식정보타운 조성 사업 특혜 고발
- [인포그래픽]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07.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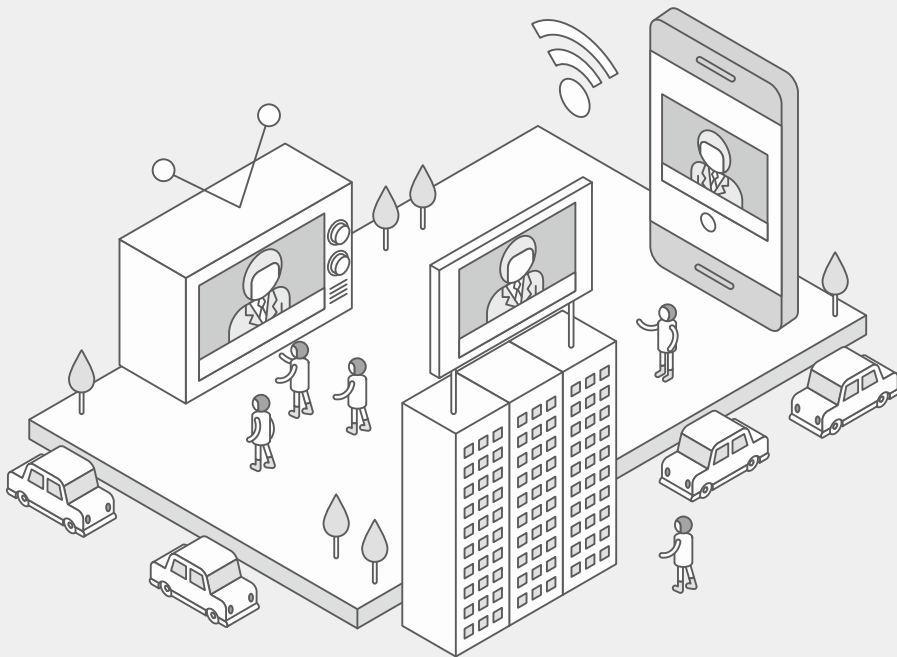
- [공개질의] 공직자 재산신고 공개를 담당하는 인사혁신처에 물습니다

07.11

- [성명] 소비자 편의 제고를 위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법안 통과가 시급하다

07.12

- [논평] '인보사' 건강보험 등재 연구용역을 수행한 이의경 식약처장은 사퇴하라
- [논평] 정부는 최저임금 결정 결과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라





신입 회원님을 소개합니다. 모두 환영합니다.

전국신입회원 119명, 가입일 2019년 5월 11일~7월 11일

강동우	김미정	김용	나성환	방택훈	안임태	이동현	이종열	전창훈	조춘수	한재길
강성규	김민진	김용준	류수연	백성곤	양기동	이명위	이주홍	정미영	조태현	허명현
강영만	김병석	김인윤	문경옥	백진오	엄기태	이명호	이희걸	정병주	차순례	현동명
강정남	김병철	김장업	문영빈	법률사무소울선	염진형	이민형	임은주	정선용	최광석	홍기범
강현주	김상곤	김종국	박기준	서옥순	유계형	이민휘	임종윤	정성균	최병암	홍선기
고광균	김선구	김종만	박선아	성보빈	윤광희	이상무	임형오	정용수	최우영	홍오성
고은지	김성한	김철규	박원진	손규장	윤기활	이상원	장민규	정정영	최익석	홍주현
곽규철	김소연	김하나	박은주	송병구	윤한용	이승기	장해철	정지영	최익수	황보석
김길호	김영림	김형준	박정구	신경철	이경명	이승화	장해원	정진희	하상윤	황희정
김남인	김영희	김황건	박정규	신경철	이경옥	이원관	전광재	조상수	한금상	
김동구	김옥순	김희정	박진욱	신예원	이돈숙	이정주	전준영	조은정	한성욱	

중앙경실련	강현신	곽지용	권순탁	김경완	김남덕	김미희	김생수	김승우	김완배	김은섭
	강혜정	곽혜정	권영준	김경준	김남수	김민수	김석준	김승하	김원욱	김은영
강미아	경민수	곽효석	권영진	김경철	김남훈	김민주	김석환	김승현	김용남	김인곤
강명구	계충미	곽희남	권오진	김경호	김대균	김병각	김선필	김시연	김용섭	김인봉
강문희	고강석	곽희동	권용습	김경환	김대선	김병구	김선희	김시원	김용숙	김인숙
강민구	고경일	구경이	권용희	김관영	김대진	김병수	김성균	김양규	김용술	김인영
강병철	고경호	구성찬	권윤정	김광배	김대현	김병수	김성달	김양수	김용식	김인철
강선미	고성순	구수정	권일민	김광수	김대호	김병수	김성수	김양진	김용철	김인태
강승구	고영일	구은경	권준기	김광훈	김도원	김병재	김성수	김영미	김용하	김일수
강승규	고영희	구자범	권준석	김국주	김동영	김병주	김성일	김영섭	김우비	김재구
강영권	고용	구찬희	권준우	김규범	김동우	김병학	김성종	김영순	김우영	김재구
강은현	고은지	권경무	권찬	김규영	김동울	김병호	김성태	김영실	김원석	김재길
강일환	고은진	권기대	권철민	김근성	김만기	김보경	김성태	김영은	김원태	김재성
강주현	고지석	권기범	권혁근	김근수	김만수	김보라미	김성필	김영재	김유찬	김재하
강지영	공병욱	권동현	권혁민	김근철	김명임	김복연	김성한	김영주	김유환	김재화
강지현	공양석	권득용	김건호	김근초	김명철	김복환	김세진	김영준	김윤기	김재환
강창걸	공정표	권만열	김경모	김기숙	김명환	김사길	김세진	김영철	김윤두	김정국
강창구	공진하	권봉철	김경민	김기열	김모드	김상겸	김소라	김영철	김윤석	김정돈
강창균	곽기훈	권상헌	김경배	김기은	김무준	김상균	김소연	김영택	김윤희	김정수
강철	곽보경	권순범	김경수	김기재	김문환	김상영	김수영	김영희	김용	김정완
강철규	곽새별	권순식	김경수	김기태	김미영	김상우	김숙희	김예은	김은경	김정현
강철승	곽재윤	권순용	김경아	김길락	김미진	김상희	김순득	김오열	김은경	김정호

김정호	김천	김형균	노창수	박기창	박순기	박제화	방상윤	성신	신봉진	양석영	원종호
김정호	김철	김형조	노희철	박기철	박승대	박종국	방정혜	성용	신상진	양성범	유계형
김정훈	김철주	김형준	대성운수	박기훈	박승배	박종근	방종수	성윤숙	신선철	양세영	유관영
김종근	김철호	김형준	라운홀	박남규	박승상	박종선	방효창	성인제	신영철	양수장	유기석
김종덕	김철홍	김형진	류도암	박노건	박승옥	박종소	배동준	소경섭	신영철	양연식	유기천
김종록	김철환	김혜경	류수연	박달현	박승준	박종열	배영환	소진성	신완기	양원표	유기청
김종목	김충환	김혜숙	류시문	박동렬	박승진	박종원	배유아	손경익	신우현	양유정	유기현
김종민	김태균	김혜순	류종렬	박두영	박양제	박종원	배종석	손규장	신은정	양윤숙	유남식
김종배	김태균	김호	류지성	박래수	박연정	박준수	배홍진	손봉호	신인철	양인준	유덕열
김종찬	김태동	김호	류형욱	박미나	박영규	박지원	백경아	손상석	신철영	양창우	유동진
김주규	김태수	김호경	류화근	박미선	박영규	박지혜	백요한	손성국	신하늘	양채열	유동호
김주목	김태수	김호균	마경화	박민수	박영기	박진순	백정숙	손성일	신현호	양태훈	유록수
김주영	김태승	김호성	마미영	박민준	박영남	박진우	백진오	손승태	심동준	양혁승	유명진
김주중	김태영	김호식	맹성렬	박민진	박영민	박진욱	백진현	손영환	심인석	엄원중	유병서
김주현	김태완	김호연	문경식	박병오	박영민	박진호	변동훈	손재운	심충진	엄청나	유인상
김준배	김태중	김홍규	문경옥	박병일	박영수	박진홍	변상해	손정근	심해정	여해경	유인환
김준식	김태진	김홍업	문상준	박보성	박영웅	박찬호	변재근	손종보	안경숙	염규석	유일용
김준영	김태현	김황건	문석진	박삼중	박영철	박창욱	서경호	손호중	안규창	염진형	유재경
김준호	김태현	김효선	문세영	박삼희	박영환	박창임	서명근	손희준	안기정	오경준	유재민
김지연	김태현	김효원	문소상	박상대	박영훈	박철수	서순탁	송계주	안병선	오길영	유재욱
김지영	김태형	김희연	문인섭	박상렬	박용제	박철주	서영덕	송기민	안병익	오병일	유재혁
김진경	김태호	김희철	문장협	박상인	박용준	박춘건	서완석	송다경	안병준	오상엽	유종성
김진구	김태호	나권일	문재철	박상현	박우석	박춘호	서윤석	송덕원	안완용	오상준	유진상
김진만	김태훈	나병현	문정균	박상형	박원규	박치우	서은경	송미영	안용식	오세호	유평준
김진명	김태훈	나순팔	문차호	박선아	박원석	박태선	서정일	송미옥	안인화	오순택	유해신
김진섭	김태훈	나일주	문현국	박선오	박윤수	박태순	서종대	송병록	안정혜	오승훈	유형임
김진수	김평진	나준희	문현정	박선희	박은아	박한용	서종철	송병주	안지현	오용식	유현찬
김진아	김학수	나태현	민남미	박성배	박은주	박해철	서지훈	송수영	안진걸	오정환	유혜영
김진필	김학수	남기원	민병욱	박성수	박은현	박현진	서지원	송용석	안철원	오정균	유호림
김진현	김한기	남상권	민수영	박성아	박응순	박형근	서한송이	송인섭	안효정	오제명	유희동
김진화	김한나	남상욱	민희숙	박성용	박의용	박혜란	석기영	송인윤	안희숙	오제문	윤건수
김진효	김해성	남원호	박건영	박성혁	박인선	박호걸	석철수	송하동	안희정	오중현	윤명
김찬동	김현동	남재걸	박경서	박성호	박인수	박호영	선동수	신통민	안희철	오창훈	윤상균
김찬석	김현석	남현주	박경숙	박성훈	박재갑	박화영	선종국	신통애	안희철	오현석	윤숙자
김찬형	김현성	남호원	박경준	박세권	박재익	박후근	설원식	신통엽	양광희	오현철	윤여림
김찬호	김현수	노상헌	박광현	박세원	박점수	박훈	설창인	신통조	양대규	오희택	윤영곤
김창균	김현정	노재원	박근호	박세중	박정민	박희령	성광식	신통진	양동호	우호식	윤영천
김창선	김현정	노재훈	박기서	박세현	박정석	박희연	성금성	신통철	양두석	원동환	윤은선
김창식	김형규	노진주	박기영	박수행	박정식	반영철	성병화	신통기	양문수	원제환	윤은주



윤인오	이기호	이석제	이운상	이창인(철우스님)	장경완	전인현	정준영	조재호	최다니엘	최철호	허지영
윤일성	이낙원	이석진	이운선	이창엽	장경태	전필기	정중식	조정근	최덕현	최철화	현남원
윤정섭	이남경	이선신	이윤호	이창효	장권	정경옥	정지연	조정훈	최덕호	최혁	현동명
윤종길	이다혜	이선자	이은재	이창희	장동민	정광화	정지웅	조종운	최명희	최호영	형성훈
윤종빈	이대영	이성근	이의영	이철우	장병호	정동영	정진민	조종철	최범식	최홍엽	홍광선
윤중식	이덕영	이성민	이인영	이춘수	장보름	정명채	정창률	조종호	최병철	최희수	홍기범
윤지원	이덕희	이성복	이일권	이충현	장석림	정병오	정창운	조주희	최봉준	최희수	홍대식
윤진철	이동석	이소영	이재걸	이태용	장성현	정병철	정태근	조준범	최석준	최희준	홍도천
윤창원	이동석	이송수	이재길	이태진	장승진	정삼룡	정태명	조진만	최성수	추동균	홍미미
윤한용	이동엽	이수연	이재욱	이학수	장심영	정상미	정태성	조진수	최성주	추우성	홍선기
윤한필	이동주	이수인(이주원)	이재완	이학용	장영식	정상욱	정태완	조진오	최성현	하상준	홍성환
윤현식	이동한	이숙희	이재운	이한길	장영열	정석원	정택수	조철제	최수만	하용호	홍순관
윤효상	이만호	이순기	이재은	이한민	장영오	정석희	정필성	조태현	최수진	하재현	홍영희
음유정	이명균	이승기	이재임	이한범	장영환	정선철	정혁제	조현	최수진	하현아	홍원선
이갑수	이명진	이승대	이정규	이한솔	장원택	정성봉	정현우	조형준	최승섭	한상윤	홍종학
이갑수	이명천	이승섭	이정남	이행섭	장은미	정세진	정혜승	주상희	최승우	한상일	홍종화
이강운	이명하	이승우	이정성	이현미	장일진	정승상	정혜승	주인권	최연태	한상훈	홍주현
이건호	이명훈	이시연	이정현	이형세	장재영	정승준	정희성	지동익	최영식	한석웅	홍준표
이경락	이모세	이애화	이정후	이해숙	장정호	정승화	정희창	지영근	최은아	한선아	홍준현
이경수	이봉숙	이영국	이정훈	이호경	장중철	정연섭	조강희	지영석	최우영	한성철	홍진구
이경우	이봉형	이영란	이정희	이호욱	장진희	정왕규	조건영	지정희	최원영	한소람	홍창기
이경중	이봉훈	이영범	이정희	이화순	장찬홍	정용수	조경민	진영수	최원천	한승구	화강윤
이경태	이삼열	이영연	이종규	이화주	장철기	정용화	조광현	진원석	최유영	한승호	황경복
이계인	이상룡	이영음	이종길	이훈	장철원	정운수	조광희	진유식	최은철	한승호	황경하
이광열	이상범	이영종	이종수	이희중	장형환	정원철	조규홍	진중화	최인섭	한연하	황광열
이광택	이상복	이영주	이종열	인치승	장해령	정원희	조금자	차은상	최인호	한영관	황기명
이광필	이상봉	이영호	이종윤	임건득	장홍석	정윤영	조병익	차진구	최일	한용환	황도수
이광현	이상엽	이용근	이종희	임동범	장희곤	정의정	조상수	채대영	최장원	한태경	황명숙
이규철	이상엽	이용배	이주하	임서구	전대홍	정의호	조성하	채민성	최재민	함동균	황선영
이규혜	이상우	이용승	이주희	임성희	전병순	정인호	조성희	채원호	최재용	함두호	황선용
이균성	이상윤	이용재	이준모	임세은	전병식	정일용	조성훈	채홍석	최정표	함영선	황선원
이근식	이상은	이용준	이준영	임영환	전봉진	정재은	조성희	천민승	최준용	함형욱	황영미
이근조	이상진	이윤황	이지영	임웅찬	전상용	정재진	조순열	천병우	최준혁	허남중	황유경
이근태	이상진	이원관	이지훈	임장원	전상욱	정정래	조순홍	최기일	최종길	허범녕	황이남
이근환	이상철	이원식	이진경	임정규	전성철	정정영	조연성	최광규	최종민	허병권	황이숙
이금희	이상희	이원재	이진영	임종필	전영진	정제용	조용기	최광용	최지한	허석	황인구
이기송	이석규	이원재	이진원	임지순	전용배	정종원	조은영	최광현	최창배	허수범	황인선
이기우	이석기	이월형	이찬영	임청빈	전용일	정주연	조일흠	최근현	최창호	허정준	황정국
이기용	이석범	이윤규	이창민	임태영	전우영	정준수	조재연	최기환	최철호	허종호	황철진

	황호식	고일두	서민호	현철재	통일협회	윤태룡	김선정	이윤일	강성배	남희정	안옥희	정보진
	황효열	공병준	서소탁			이승규	김재부	이은주	강윤영	노승복	양끝선	정석윤
	황훈주	곽도	신행숙		강만성	이우영	김재준	이정임	강정숙	노재남	여남권	정신우
	황희정	곽충삼	심준신	시민권익센터	고석주	이점호	김정근	이재영	강창수	노재천	여정애	조승재
(주)영광공영행사조합	권영진	양우현			고유환	이정우	김종남	이주석	강학도	류금렬	오성관	조오현
선우인티내셔널	권일	윤재용	김강준	곽일환	이종수	김진숙	이지은	경명자	문상모	오성주	조하영	
크레텍책임(주)	김경희	이동근	김상현	김근식	이진만	김진욱	이지아	고영주	문상필	오순혜	진성우	
프라이머리스(주)	김광만	이만희	김석기	김동규	이현희	김태희	이호숙	권대용	문성환	육근호	천성은	
한국산업폐자원경제조합	김금옥	이명수	김영미	김병조	장인석	김학군	임명희	김경섭	박광호	육방호	최선중	
	김기성	이민석	김태경	김삼수	장형원	김형경	장선애	김경수	박대기	육영민	최윤숙	
	김덕기	이병준	김태룡	김성호	전귀정	김형근	전규화	김귀호	박명욱	육춘금	하민철	
경제정의연구소	김도영	이상협	김택성	김용현	전영선	김황식	전방욱	김기만	박성호	육충석	한은진	
	김동식	이양재	김현아	김은수	정동욱	노영성	전영권	김대봉	박순욱	육혁수	한장용	
김범	김미경	이유미	나태균	김일한	정승훈	박병근	정광민	김민수	박애숙	우정숙	허남두	
김지환	김석기	이은재	박병식	김장철	정창현	박상덕	정석중	김상기	박용안	원순실	허추구	
김혁	김성수	이제선	서경수	김재기	조광환	박운남	정세환	김상일	박인근	유천업	허희경	
노영록	김세용	이주희	신희권	김재원	최우진	박용섭	정연홍	김상호	박준기	윤길정	현정임	
문인철	김재령	이창수	심재원	김정용	최호창	박인재	정의호	김석준	박태원	윤미정	홍성태	
박상안	김재익	이현주	유주상	김정진	추재훈	반태연	정혜진	김수영	반영진	윤상준	황분희	
백승호	김정인	이희승	이대순	김주호	한정훈	배정순	조무현	김영우	배동주	이갑선	황서영	
백종효	김준현	임경수	이덕우	김창석	홍영근	서은주	조백훈	김영화	백순환	이길중	황한성	
손창민	김철홍	임영희	이명근	김학성	황대중	송문길	진수환	김옥희	백승일	이도영	황황욱	
송운학	김태호	임형백	이순기	김형만		송민석	최규천	김용운	서원배	이맹하	기산종합건설(주)	
여은미	김형욱	장명진	이영길	노귀남		송재석	최복규	김원용	서주종	이상귀		
윤연철	나인수	전은호	이지연	당영숙	강릉경실련	신미영	최송길	김은주	서현주	이은경		
이덕호	노두승	정성훈	이창수	문행규		신승춘	최순희	김삼이	석진국	이응선	광명경실련	
이승훈	노웅래	정애리	이태호	박경서	고석태	심규만	최승룡	김정수	성만호	이인우		
이혜란	류성룡	조돈철	장영	박금해	고재정	심윤보	최우현	김중현	손동석	이장명	강신재	
임효창	류중석	조우현	장윤정	박은주	구광범	심재상	한동준	김진하	손은희	이정택	강옥영	
천미림	박경남	조재형	장진영	박준우	권상동	심현섭	함식	김청집	손정식	이정화	강옥희	
최재윤	박상위	최강림	정경수	박준형	권오석	양창훈	홍용표	김충근	송오성	이종우	강윤숙	
하능식	박성우	최두호	조영관	배인교	김남두	원경숙	홍진원	김판열	송호석	이주일	강주례	
홍창식	박연환	최명철	조현	배종근	김남영	윤도현	한삼림	김민희	송희자	이철용	강찬호	
황은경	박영웅	최봉문	추승우	서관승	김대진	윤성원		김필성	신미경	이현길	고영원	
황정호	박정윤	최윤정	하성용	신영욱	김덕기	윤순모		김한기	신미애	이형로	고완철	
	박찬우	최정우	대호관세사법인	신종성	김동명	이귀녀	거제경실련	김현호	신용호	장민욱	고재원	
	박희정	하동익		안춘훈	김만재	이규송		나양주	신찬숙	장석주	고형복	
도시개혁센터	배웅규	함승희		위정희	김봉래	이숙희	강경수	남기원	심재국	전갑생	곽도훈	
	백인길	허도한		윤영전	김석래	이요한	강병주	남덕희	안미나	정길호	곽은	



구교형	김정미	박미화	서은경	유수연	이혜수	최경화	김길현	모현숙	손점식	이은방	정혜련
구차환	김정숙	박민관	서이석	유흥우	이혜진	최미영	김남수	문문옥	손희정	이인수	조경록
권순남	김정자	박민영	소문주	윤승형	이효성	최상철	김대원	문보나	송윤주	이재석	조광득
권혁이	김종임	박복임	손선주	윤종미	임삼례	최재석	김덕은	박광복	신은희	이재윤	조교영
금강정사	김종진	박서운	손솔이	윤철	임지연	최철규	김동현	박근성	신재안	이정근	조선익
김가연	김진	박성민	송경섭	이강순	임진희	추규호	김병철	박남규	심재훈	이정량	조인형
김경태	김진경	박성배	송해나	이건복	장선	하숙례	김상국	박미정	안영균	이정주	조현지
김경표	김진숙	박승원	송해선	이금숙	장진아	한금희	김성일	박병규	안현석	이정학	주지형
김경화	김진일	박영훈	신가람	이기영	전종석	한상미	김수영	박병일	양성호	이종성	주호연
김기영	김철수	박옥남	신동렬	이로사	정도환	한윤선	김순재	박상원	양현인	이종택	지명순
김남권	김학준	박은경	신민선	이말복	정병오	한창욱	김연순	박성수	양혜령	이준영	지병근
김남현	김현	박재금	신복인	이명숙	정상영	한홍기	김영규	박수인	엄창수	이학균	지현도
김남희	김현정	박재철	신선영	이미경	정애숙	허기용	김영길	박양우	여상구	임가춘	차현승
김다솜	김현정	박재희	신성은	이미희	정은영	허정호	김영남	박용수	염해숙	임동훈	채인기
김동범	김현채	박정선	신성호	이병렬	정인애	허종은	김영채	박용	오미정	임성태	채형욱
김동진	김현희	박종기	신수진	이병순	정중환	허창순	김영현	박이화	오주섭	임숙경	천재영
김민재	김혜정	박종미	신숙진	이병철	정지선	홍은선	김영환	박정열	오지혜	임영범	천형욱
김봉섭	김효숙	박종빈	신영옥	이복자	정진우	홍진호	김영환	박종근	오지홍	임용희	천홍석
김봉화	김희수	박종익	신은숙	이부순	정찬규	황동식	김인수	박종렬	오지홍	임정훈	최동기
김상열	남기표	박종혁	신혜정	이석석	정학균	황인란	김일호	박종식	유방실	임정휘	최용석
김선호	남윤화	박주한	신혜진	이상숙	정혜경	황재연	김재중	박준곤	유영표	임종연	최윤정
김성자	노병일	박준서	심상록	이성진	정희균		김재찬	박창현	유현	임현철	최정구
김소윤	노신복	박진석	심춘옥	이송재	정희진		김정훈	박철웅	윤두종	임형채	최종섭
김수연	노용래	박춘선	심혜진	이승봉	조범상	광주경실련	김지인	박태규	윤봉란	임형철	최주영
김수진	노혜숙	박태준	안경애	이양희	조상희		김창재	박향미	윤봉영	장의수	최진규
김승복	노희준	방소현	안석모	이연숙	조이라	강은섭	김철현	박형철	윤영돈	장익	최진우
김애란	류미숙	배권식	안철환	이영신	조옥경	강정미	김태욱	배백호	은광석	장춘식	하은이
김영근	류정희	배준	양금석	이영호	조은하	고근	김해룡	배용태	이계영	전순위	하주아
김영미	문진숙	백용구	양기대	이영희	조태섭	고부섭	김현	백영대	이근용	정두숙	한명석
김영필	박경옥	백정순	양정현	이원영	조해성	고영삼	김현모	백익순	이길남	정병호	한샘
김용관	박계량	변미애	양철원	이운식	조홍식	고형석	김현석	백종기	이동민	정상문	한희주
김용길	박광수	변성수	양희연	이은경	주명식	공수현	김현중	변원섭	이명구	정용완	허기석
김원선	박기은	변한주	오광덕	이은영	주태진	구희선	김효중	서민호	이봉주	정원태	허문수
김윤옥	박명은	서두원	오명희	이은재	지미선	권충화	김훈	서상기	이상길	정윤남	현승만
김윤재	박문경	서방자	오민석	이재춘	진장호	기우태	나미영	서상기	이성각	정은수	홍영신
김윤호	박미경	서삼례	오성님	이정희	차병일	김경미	나병철	서재형	이성근	정일용	황덕자
김은진	박미영	서순자	우동훈	이정희	차성미	김경현	나성영	선종아	이성길	정찬기	황동현
김재성	박미정	서용원	우병설	이중석	차정은	김광영	류한호	설상욱	이승노	정찬용	황보관석
김정	박미정	서유리	원범재	이현우	최경자	김균수	명노민	소범환	이연	정혜경	(유)용진에너지

(주)대한가스산업	김철광	윤종석	최연호	박기준	정미영	민경환	장경익	권기억	김정렬	서정길	이부용
(주)영암마트	김현미	이관순	최은경	박노수	정병주	박광근	전해정	권대우	김종웅	서종철	이상록
(주)해양도가스	김형균	이덕수	최자경	박상훈	정성균	박만호	정일환	권병훈	김종태	성윤상	이상천
고려가스(주) 광주	김휘연	이명숙	표상욱	박새봄	조용석	박병든	정정숙	권오숙	김종태	손광락	이상화
버스조합	김희진	이명희	하영백	박정민	주삼식	박상현	정희상	권오준	김창수	손상호	이선혜
	김희철	이미경	허심덕	박지령	차속희	박연희	조군휘	권윤진	김천일	손상흠	이상우
	나영란	이미숙	허진	박지영	최경용	박정원	조승현	권태윤	김태선	손승완	이연재
구미경실련	나효훈	이민호	홍인수	박중수	최병우	박태순	조영철	권택중	김태수	송상수	이윤호
	노상진	이상도	황효숙	서옥순	최복희	배건웅	조용문	권휘동	김태우	신영섭	이장수
강명천	라병희	이성철	주광정일(주)	석경수	최우환	백종일	조용식	기영식	김현조	신홍권	이정웅
강승수	모경순	이영애		송석암	최총식	신광하	조종석	길성민	김효진	심병철	이종경
강신웅	박성도	이원재		송지영	한성수	신명순	채신덕	김경민	나성환	심준섭	이지영
강현주	박성표	이원희	군산경실련	신예원	황유민	신상천	최영미	김대식	남동강	안영석	이진태
고영호	박순이	이정건		신예진	황은아	심상용	최재웅	김대진	남동헌	안화석	이진현
구자근	박영주	이제수	강왕근	심상선	(주)아진화학	심영섭	한재혁	김도영	남운환	양우준	이진희
권구일	박응도	이종률	고계근	심재숙	군포위생(원성회)	안철환	한혜경	김도한	남인철	양원규	이창건
권보	박이숙	이창형	고덕영	안중호	신화엘레비테(주)	양미화	허우섭	김도형	노광해	엄봉훈	이해숙
권순서	박재욱	이태동	김부영	양진우		양영재	홍석만	김도형	노윤경	여우현	이형태
길윤옥	박정구	임은기	김영혜	양해택		어중석	홍철민	김동석	류규하	오서운	이호석
길효양	박정훈	임주석	박은아	양희욱	김포경실련	오미애	황갑임	김동철	맹일영	우동락	이희영
김귀화	박주영	장문석	심규만	오승원		오홍미	황규숙	김명수	문효상	우형택	임윤섭
김도형	박현우	장세광	홍관표	우예현	강명자	원용벽	황인문	김영혜	민영창	유성근	임종오
김동욱	박형진	장연덕	홍기원	유애순	권내경	유양욱	황인순	김무중	박경욱	유성호	장민규
김보준	배상길	장종길		육순일	김남규	유영록	(주)남도상사	김미화	박대경	유영익	장석희
김봉교	백승국	장준우		이경옥	김두관	유호석	(주)신원렌타카	김민식	박동환	유영환	장우석
김성만	변창우	장훈성	군포경실련	이경은	김문경	윤영자	윤심이칼국수	김상돈	박병준	유왕근	장은숙
김연고	성병근	전유한		이기순	김미자	윤미숙	원해당(원해)	김상호	박병호	윤기활	장해열
김요나단	성종운	전호갑	곽도	이상운	김영로	이경화		김선완	박승철	윤태우	장호경
김윤희	소평진	정제봉	국정아	이상춘	김종열	이경희		김선희	박영식	윤현식	장호열
김은희	송철원	정진수	김대욱	이석진	김준현	이기형	대구경실련	김세화	박재락	윤홍식	전상훈
김응중	신미정	정택균	김석현	이선덕	김진희	이두열		김승환	박종률	윤희주	전영선
김인순	신주식	정택동	김애경	이유설	김창집	이부형	감신	김신호	박종익	이경애	전재호
김재욱	심재필	조경래	김연승	이종암	김철경	이재홍	강연환	김영권	박종철	이경탁	정경선
김재훈	양진오	지대근	김영희	이혜경	김형창	이정규	강점문	김영모	박준상	이경화	정성윤
김중배	오경숙	최근애	김재용	이희재	남익선	이정수	경희창	김용두	박한승	이권용	정연욱
김종율	오영재	최낙렬	김창호	임구원	도현순	이종기	공영선	김용찬	박해식	이근원	정영은
김준희	유준호	최서규	김희라	장명희	류문식	이종준	공재식	김용철	박희경	이동영	정은숙
김진익	윤달근	최선경	노상래	전균섭	문태식	인희욱	곽덕환	김윤호	배은정	이미정	정재근
김진희	윤순덕	최선호	문홍민	정미순	문현미	임주영	곽동주	김재범	변부형	이병화	정제영



정태완	강승연	김중선	배효상	오종섭	이홍범	최정우	김문재	박종두	이찬식	한상효	구명중
정해용	강영실	김중하	백정웅	오학석	임성복	한경이	김보현	박종범	이천호	한태연	구주영
정휴준	강재규	김중학	백희숙	우금옥	임윤택	한기평	김성두	박창윤	이철수	홍건숙	구효송
조락현	고나현	김주홍	변판섭	유병연	임인걸	한동범	김수경	박철수	이철호	홍근표	권명섭
조문영	고태선	김지윤	서동국	유인수	장복수	한성림	김승호	박해령	이한경	홍석준	권범현
조방희	곽기웅	김진숙	서영석	육정임	장인성	한원중	김신규	박혁진	이현중	홍순길	권오성
조성제	구범림	김진영	서영완	윤경수	장인철	홍성연	김영태	박현희	이형오	홍진표	권은경
조용원	권은남	김창근	서재열	윤주병	장형근	홍성진	김예영	박홍식	이형완		권재현
조인지	권의경	김창숙	서정원	이건희	장화식	황의달	김정민	배상기	이홍성		권태섭
조정학	권종	김충신	서한형	이경옥	전국진	황재익	김정아	백재봉	임종식	부산경실련	김가야
주대환	권철명	김쾌환	서해림	이계자	전영춘	(주)동그랑	김종익	서이채	장미		김갑환
차진근	김경미	김태연	서홍원	이광자	전용석	(주)마루농산	김중호	송미승	장은숙	강경태	김경일
최동학	김경희	김태현	성기석	이광진	전허구	(주)원미음푸드시스템	김창세	송영종	장종국	강규성	김경조
최우곡	김금숙	김태호	손대근	이동준	정상배	영광(비인)호세(동주)	김태중	송진호	전종국	강대영	김경지
최원아	김기남	김태훈	송민호	이민휘	정상훈	대림유통	김판조	송홍범	전철균	강동우	김경택
최은영	김기범	김현정	송영환	이범규	정상희	명두종합건설(주)	김하성	송희진	전철영	강미라	김길수
최종만	김길순	김현택	송유숙	이병승	정승래	법무법인 지앤에피	김홍석	신관용	정남준	강민석	김길호
최준호	김남인	김현하	송윤	이선경	정우택	정원(비인)영광(동주)정수	김희환	신재범	정명오	강병석	김남식
최한경	김동선	김형태	송인걸	이성일	정은선	청운종합건설 주식회사	명근홍	심재경	정승임	강병호	김남일
최한석	김명경	김혜천	송주섭	이세경	정인구		문귀일	안영하	정영창	강성태	김달기
하순화	김명제	김홍숙	신상헌	이승복	정희대		문영덕	양명희	정진대	강시명	김대래
한상인	김명주	김환식	신선호	이승용	조석귀	목포경실련	문웅	양승희	정호원	강예윤	김대중
한승훈	김병국	노경옥	신현진	이시혜	조순오		민경준	양영주	조기석	강유동	김도
하인설	김상환	도남선	신혜영	이애정	조승래	강병국	민찬홍	양핀승	조성익	강인중	김동명
홍승활	김성용	명옥	신희권	이영수	조용석	강병조	박강일	여성중	조순형	강정규	김동수
홍희청	김양호	명을식	신희영	이용훈	조윤제	강성태	박근영	오민정	조영교	강정식	김동연
황광석	김영기	문경재	심영주	이윤숙	조항범	강제석	박문옥	오승주	조용호	강주하	김동호
황병일	김영석	문정수	심응무	이윤행	주옥규	강주천	박석일	원요준	조인수	강종목	김명석
황정현	김영주	박근영	안경래	이재민	주정봉	권인철	박성일	유경생	조준범	강태문	김명섭
황종숙	김영희	박상도	안병진	이정	진동규	김경순	박성진	유광호	차경아	강필원	김미경
(주)나비커뮤니케이션즈	김욱	박상민	안영찬	이정호	진동섭	김경옥	박세훈	윤치솔	천현중	강해상	김미경(2)
개양엔진종합상사	김원숙	박성진	안재준	이정희	차정민	김경철	박소영	이명희	최명숙	강형숙	김민철
에스케이건설(주)	김원희	박영순	안중호	이종범	최경훈	김관옥	박승채	이문희	최병기	경규성	김백철
	김은주	박종대	안중훈	이창기	최낙구	김광배	박승옥	이병채	최원수	고명석	김병기
	김은배	박종석	양미경	이철은	최미선	김광창	박영용	이상권	최일	고순생	김병용
대전경실련	김인철	박준혁	양석희	이학재	최봉문	김두영	박용목	이인수	최종명	고인홍	김병하
	김재경	방명덕	양승의	이현희	최영란	김명숙	박인웅	이재광	최호길	고재일	김보엘
강다은	김재석	방정희	양충규	이형복	최이성	김명진	박정석	이정진	최환석	고정연	김복준
강명자	김재홍	배동국	오세윤	이혜진	최장환	김명철	박정희	이종화	하상복	공병승	김봉규

김부근	김재찬	김해신	박영봉	서현국	신철성	유재엽	이병준	이주헌	정권영	조양래	탁영민
김부민	김정량	김호범	박영현	서현식	신항남	유정자	이병진	이주홍	정규용	조영규	하상윤
김분이	김정민	김홍태	박용주	서호영	신현무	유정동	이병호	이주환	정근	조용언	하상철
김삼문	김정수	김희곤	박용하	석승희	신혜숙	윤강훈	이봉진	이준승	정기섭	조용한	하성훈
김삼수	김정숙	남경태	박용한	석진열	심상조	윤경만	이상백	이진수	정달식	조유장	하순금
김상길	김정숙(2)	남기찬	박윤기	선근우	심윤정	윤경태	이상원	이진수(2)	정도영	조윤득	하주수
김상배	김정순	노경조	박재본	선석렬	심윤정(2)	윤나영	이선희	이청재	정동만	조윤환	한기희
김상태	김정택	노광진	박재욱	설광석	심재준	윤상미	이성권	이춘구	정동열	조은정	한기성
김석준	김정현	노상훈	박정구	설호석	심형철	윤석준	이성환	이학봉	정말순	조준영	한병무
김석호	김종구	노영옥	박종수	성병창	아영아	윤수성	이성훈	이현우	정명길	조지혜	한병성
김선년	김종기	노효길	박진성	손병열	안경옥	윤재성	이성희	이현재	정명희	조홍규	한병철
김성권	김종기(2)	도한영	박찬일	손상용	안문상	윤재철	이순정	이현주	정미경	조효제	한상준
김성길	김종민	류강렬	박철중	손순용	안병록	윤재현	이승우	이훈전	정민재	주안나	한성안
김성수	김종한	류위훈	박철한	손영일	안연균	윤정현	이영갑	이희길	정성문	주재민	한재철
김성열	김주영	류재중	박태주	손정현	안원하	윤지영	이영신	임무진	정세자	지경아	한종석
김성춘	김주현	류정호	박한규	손창옥	안원호	윤대환	이영호	임우택	정순영	지은아	한효준
김성태	김주호	류종성	박희영	손치훈	안재민	윤현철	이옥형	임종수	정애니	진수진	허두불
김성훈	김주희	류진호	박희정	손현식	안종일	이갑준	이용주	장귀봉	정용성	진호상	허해녕
김성훈(2)	김진	모상선	방성애	송순임	양대건	이강진	이용학	장다감	정용수	차동박	현지훈
김성훈(3)	김진필	문규성	방택훈	송원섭	양동열	이경덕	이원경	장문숙	정은호	차동욱	혜성스님
김세윤	김진현	문상철	배광효	송은주	양재화	이경학	이위덕	장문정	정재호	차진구	홍경자
김수미	김진홍	문영빈	배수미	송재은	양종필	이귀순	이윤석	장봉주	정중학	차창호	홍봉신
김승주	김창희	문재천	배용준	송정숙	여재호	이규섭	이은화	장성호	정중화	천상수	홍일표
김쌍우	김철도	민남순	배해래	송종두	오병루	이규현	이일용	장윤석	정창오	천용욱	황범하
김영신	김태경	박국순	배화숙	송종화	오상준	이남기	이재정	장재구	정춘희	천정호	황보승희
김영옥	김태구	박도영	백정근	송종환	오상환	이남중	이재호	장준흠	정치금	천현수	황영식
김영욱(2)	김태훈	박미경	백명효	신경근	오세룡	이동윤	이정남	장지태	정래영	최남연	황인
김용섭	김태희	박미영	변재우	신경철	오연석	이동일	이정민	장해욱	정태효	최달웅	황인구
김용원	김하나	박민우	변희중	신군재	오지영	이동진	이정식	장희정	정하윤	최병근	(주)경성에너지
김용필	김학진	박복용	부두봉	신만석	오철조	이동환	이정주	전광재	정한섭	최보규	
김유경	김한식	박봉수	서경국	신병훈	오태석	이동훈	이정향	전보익	정해균	최수영	
김윤영	김해몽	박석원	서미화	신상구	옥성애	이동희	이정호	전선임	정해명	최승환	속초경찰서
김은숙	김해영	박선아	서범수	신상해	옥진우	이두호	이정환	전세표	정현돈	최원석	
김인한	김항남	박성수	서봉원	신성한	왕인	이만수	이정훈	전우철	제미경	최윤희	강동우
김장섭	김현욱	박성철	서수금	신승균	우명자	이명식	이종석	전일수	제연화	최재명	강미심
김재경	김현재	박성훈	서양수	신영호	우성철	이명호	이종원	전진영	조명래	최진욱	강석태
김재명	김형균	박세간	서은정	신유천	우정용	이미경	이종원(2)	전찬일	조명제	최철원	강신길
김재식	김혜경	박승제	서재덕	신인철	유완식	이민호	이종학	전현수	조삼현	최현덕	고영진
김재일	김혜경(2)	박시우	서종석	신정희	유재기	이병기	이주영	전호열	조상희	최혜경	고인선



고종문	김원일	박만용	신종출	이건욱	임종희	최애리	고재홍	나태성	양재철	이의봉	조영춘
고현주	김유경	박명중	신창승	이경상	장경민	최영미	김경수	남택진	양진하	이재문	조은석
공정관	김유리	박병훈	신현식	이경애	장성원	최용석	김경호	도진욱	염규용	이재식	조형훈
곽병용	김은희	박상준	신홍사	이관	장은신	최유정	김기덕	명홍진	예인기	이재혁	주영수
곽중환	김인섭	박성진	심삼욱	이기원	장재수	최종현	김도형	민경록	오세환	이정원	주영훈
김 철	김일환	박성한	심연흠	이대길	장재환	최지문	김동선	박다예	오완석	이정하	주윤철
김경석	김재학	박세찬	안경민	이대복	장주열	최지인	김동원	박동선	오일용	이종령	지영호
김경순	김정식	박수경	안국자	이돈섭	전동운	최진철	김말순	박복자	오지현	이종만	진대운
김경식	김정인	박승민	안세준	이동균	전용성	최춘파	김미선	박원기	오해경	이주연	진송주
김계남	김정훈	박영덕	안총석	이문규	전이령	최택수	김미정	박용환	우양미	이주현	진한중
김동수	김종담	박영희	안중원	이문성	정봉재	최형덕	김민수	박윤희	유상태	이진성	최문태
김동순	김종윤	박용기	양언석	이문영	정상철	최혜경	김복녀	박은호	유재성	이찬용	최병정
김말순	김주철	박정민	양영희	이미경	정순희	최효섭	김봉균	박익종	윤귀현	이창모	최석환
김명섭	김준섭	박종갑	양진욱	이봉진	정양언	탁동철	김시영	박재관	윤두천	이창진	최성배
김미정	김진태	박종학	양해준	이상정	정연미	한상민	김영기	박재순	윤석신	이판수	최영숙
김미정	김진태	박종현	어주하	이상호	정용주	한성희	김영래	박제현	윤희경	이필근1	최운호
김병욱	김진희	박종훈	엄경선	이수영	정윤희	함국기	김영태	박준배	이경섭	이필근2	최인수
김부석	김천수	박희식	엄태영	이열호	정은희	함준식	김용일	박찬호	이경환	이현순	최인자
김상기	김철민	반영덕	오광택	이영선	정진용	허우린	김용철	박태경	이금희	이희수	최진학
김선일	김철수	방대식	오모현	이영수	정흥기	홍련암	김웅	백혜련	이길영	이희숙	최진환
김선철	김철환	방원욱	오승택	이영순	조광덕	홍명관	김은주	변영선	이명욱	임용순	하만효
김성미	김춘식	배석진	오윤택	이우영	조명수	홍인숙	김은하	서상범	이범주	임채란	하순진
김성욱	김충남	변성수	오홍월	이은희	조성열	홍전희	김장일	서수정	이병희	임태정	하창호
김성율	김태영	변인미	원은주	이인숙	조현국	홍해용	김재기	서정근	이상명	임혜경	한경수
김수자	김형걸	변인신	유성봉	이재선	주대하	황시영	김재성	서환	이상애	장명옥	한경희
김수정	김형기	서영기	유영민	이재정	주영래	황영필	김정욱	서흥석	이상해	장성근	한곡지
김순복	김호준	서은진	유영창	이종섭	주용현	(주)강원으로	김중석	성명순	이성호	장점숙	한창균
김순봉	김희근	석명환	유종완	이종식	진장수	통일통상연구소	김중선	성현구	이성희	정계화	한창석
김승길	김희정	선영복	유주희	이종식	진형배	한살림	김준혁	손성배	이수행	정문호	한풍교
김승숙	남상진	소문섭	유혜정	이주연	천성미		김지란	손혜정	이승호	정성균	허성균
김승철	노금희	손병섭	윤광훈	이종길	천성필		김진한	송명기	이애형	정수진	허윤범
김시형	동병희	손재복	윤규식	이진어	최관식	수원경찰서	김창극	송원찬	이영인	정순해	허현태
김연미	라용일	송경희	윤기순	이진형	최근석		김충관	신경환	이영주	정원제	홍사준
김영석	문재용	송재철	윤신남	이철	최길순	강미경	김혜영	신지훈	이용욱	정지운	홍영호
김영식	민현정	송종철	윤재훈	이필순	최돈환	강민철	김현태	신한미	이용호	정태정	홍중수
김영아	박경미	신대섭	윤재희	이현미	최동권	강인선	김혜련	심재광	이운창	조규만	황경희
김영호	박경심	신선익	윤정은	이호석	최동훈	강학천	김효근	안필규	이원욱	조병모	황대호
김응일	박경자	신오일	윤준	임대식	최성주	강희진	김훈	안혜영	이원재	조석환	황민석
김원기	박덕희	신재민	윤지숙	임시연	최승명	고병역	나민수	양우혁	이윤규	조승백	황성우

황용원	강기성	김정란	박영준	이갑순	정연주	강병국	김현진	신성문	이수연	조경송	김동식
(주)청영건설-최영옥	강수진	김종길	박정희	이강숙	정용기	강신우	김후섭	신소봉	이수진	조선희	김동채
김종합건축사사무소	경삼수	김종익	박종호	이경란	정은식	강희덕	김후승	신승한	이승용	조재국	김명주
	고관	김지훈	박준연	이경석	정은혜	고봉철	남화선	신영희	이연호	조춘선	김성춘
	고미나	김창근	박태순	이경진	정이진	고혜란	노국환	신정원	이영주	조현주	김숙자
순천경실련	고영인	김창모	박해부	이근미	정정순	구민진	류호웅	신희정	이완용	조효미	김영옥
	곽도훈	김창섭	박홍래	이미숙	정종길	권오병	박기두	심민규	이용성	지은숙	김영표
강철호	곽병용	김창하	박희경	이민근	정주호	김경수	박민기	심재식	이용호	진량규	김점자
강현주	곽태영	김철환	백영국	이벽희	정진욱	김경철	박민정	안경모	이은주	채 현	김정선
김미정	권태근	김초환	백지수	이선희	정철욱	김광윤	박보정	안영일	이의협	채풍목	김종구
김선명	김경미	김춘호	서정열	이선희	정해욱	김대우	박석두	안은경	이지형	최갑주	김주환
김성숙	김경숙	김춘호	서한석	이수정	제종길	김덕현	박성애	안정희	이정숙	최두영	김희선
김성준	김경애	김태훈	서혜경	이숙경	조경래	김동운	박성진	안태희	이정희	최석운	박병규
김준호	김경옥	김해만	석진성	이숙란	조안호	김명주	박수경	여현정	이종인	최성범	박복숙
김지훈	김기범	김해정	설점순	이양주	조재기	김명해	박수형	염충	이지연	최소영	박선애
김현덕	김기희	김현삼	성준모	이옥희	조충현	김민섭	박애경	오경아	이지은	최영보	박성현
나창수	김대일	김현호	손현주	이용진	주만수	김민정	박옥경	오성탁	이철규	최영식	박숙희
박재현	김동규	김형욱	송창식	이은림	채수아	김병연	박윤희	유기용	이태환	최예슬	박연호
박철우	김동인	김혜숙	신남균	이은영	최경숙	김병욱	박장수	유남숙	이향란	최진식	배선주
서용현	김명연	김호득	신동국	이정민	최관영	김성동	박태원	유상진	임승기	최화영	서영남
오정록	김미영	김화궁	신윤관	이정아	최복수	김수은	박현일	유선영	임정지	하보균	서진호
위미영	김민	나정숙	신장환	이주옥	최영화	김수정	방준배	유영표	임진택	하신호	서호영
이상휘	김민진	남기순	신청하	이창수	최운	김소옥	배만병	윤경일	정만호	한민석	성창희
이욱기	김병재	남양숙	양근서	이천환	최윤정	김순이	배연정	윤덕규	장영달	홍성현	신재현
이종철	김복희	도원중	양태호	이해나	최임이	김양수	배우한	윤수영	장현실	홍승희	심경택
이천오	김삼엽	류영숙	양현석	이현선	최재우	김어진	백종덕	윤정원	전승희	황규영	심재수
장동식	김상혁	마양호	오관영	이희대	최채림	김연호	서동일	윤중대	전재은	황순찬	안성용
정순관	김성봉	문강섭	오남숙	이희연	최현수	김영선	서시은	윤형로	전재현		양삼덕
조남훈	김세영	문버들	오은석	임명자	하은희	김영학	서진숙	이경우	전종덕		오미현
조병록	김세원	문혜령	오정순	임미선	하혜경	김용필	선종훈	이그루	정남선	여수경실련	오승석
주지은	김송철	민병권	오진호	임현규	한수연	김은미	성문현	이대형	정동균		윤주현
홍상우	김영림	박경용	오현주	장기준	현유경	김은숙	성종규	이동연	정연경	강규호	이상미
비손이앤씨	김영숙	박경중	왕은희	장동근	홍영남	김일구	송명원	이동준	정연준	강성훈	이성미
황인용신경과의원	김영애	박경태	원미정	장동일	황영순	김종혁	송영배	이동진	정영수	강용원	이식
	김영희	박금자	위성태	장미진	황현주	김지연	송요찬	이명규	정영학	고용국	이유형
	김옥경	박동신	유창희	정명숙		김진영	송진원	이명춘	정주영	공성식	이정희
안산경실련	김윤재	박승렬	윤다미안	정세진		김창현	신권대	이미순	정하성	권동채	이철
	김윤희	박승희	윤명숙	정승현	양평경실련	김한일	신도선	이반석	정혜경	권인홍	이평호
강경호	김은주	박영옥	윤상민	정안철		김햇님	신민희	이선희	정혜진	김남동	이항월



임호상	권혁봉	김영자	마애진	박형국	안봉섭	윤준호	이윤숙	임승한	조택선	한소택
장준배	기보중	김영자	목현실	박홍재	안신실	윤항숙	이은자	임은혁	조휘명	한영순
정남숙	김 준	김영준	문미자	배경희	안재영	윤희태	이은화	임철만	주상운	한영옥
정승환	김강산	김영춘	문승욱	배정수	안정민	은종원	이은화	임현권	주상운	한은상
정정식	김경건	김예론	문연래	배중열	안창호	이강문	이의성	장경자	지소연	한은상
정주현	김경률	김옥자	민승례	변영구	안철한	이경수	이장우	장교환	지정철	한정민
정차섭	김경림	김왕곤	박경룡	변정해	양정분	이경호	이재범	장영란	지효숙	한정현
제윤경	김경자	김용섭	박경미	변정해	양희진	이광석	이재학	장원섭	진선종	한준학
조현혁	김경중	김용태	박기환	부태길	엄기홍	이광윤	이재희	장원주	차준은	한준호
천상국	김경화	김우재	박명순	빈종진	엄태희	이광호	이정길	장재훈	채봉수	한준희
최경자	김광식	김운경	박명철	빈종진	엄희용	이기훈	이정숙	전성호	천기영	한희자
최진숙	김광인	김은이	박병건	서원교	여재혁	이길수	이정형	전영석	천병기	함연자
한해광	김금녀	김은하	박병대	서은숙	여한수	이길윤	이종한	정병관	천재영	함연자
홍신아	김기석	김의섭	박상욱	서정순	오근철	이미희	이주윤	정선욱	최동규	허림
	김기열	김인기	박상용	서희숙	오명환	이박우	이준호	정성기	최병주	허범석
	김기은	김재임	박상임	성주영	오병재	이백선	이중재	정순현	최병탁	허수행
이천여주	김기태	김재홍	박선규	성희연	오석호	이복수	이진관	정승수	최복순	허임범
경실련	김길홍	김정수	박성희	송경은	오성순	이부경	이진혁	정옥형	최성원	허임범
	김대축	김정천	박수자	송영득	오성용	이상년	이찬우	정유리	최옥명	허준환
강경모	김두환	김종원	박양래	송영득	오형선	이상원	이창규	정윤지	최용철	홍경아
강석림	김미혜	김진영	박옥선	송이식	우근배	이상태	이창수	정윤희	최윤용	홍성동
강신욱	김병기	김진용	박인	송정호	우순애	이상혁	이창수	정은영	최은실	홍원표
강영애	김병수	김진창	박인오	송창신	우순희	이석환	이천수	정은희	최인근	홍은하
강정순	김상실	김창균	박일엽	신계영	우종만	이선	이춘석	정인우	최인식	홍종민
강창영	김선희	김창수	박재선	신덕선	우현녀	이선정	이충환	정일구	최재화	황경애
고경애	김선희	김학경	박재우	신동신	원종순	이성훈	이한표	정춘화	최정관	황규문
고윤지	김성국	김학재	박전희	신동윤	유경윤	이승남	이해철	조경국	최정숙	황규문
고인정	김성국	김학훈	박전희	신동천	유상열	이상순	이현숙	조계만	최정화	황인동
공미선	김성길	김현숙	박정하	신두임	유상희	이영식	이현숙	조길문	최종	황인재
구경혜	김성완	김형식	박정화	신영호	유승열	이영우	이현호	조남술	최종	황현숙
권광일	김성재	김호열	박종구	신완재	유재경	이영채	이현희	조생남	최종악	두레주르창전사거리점
권순원	김세동	남기태	박종오	신은순	유재춘	이영현	이호돌	조용월	최준봉	사단법인에이트참임
권순원	김수동	남용대	박종욱	신종욱	유혜란	이영훈	이호영	조은미	최현희	
권영미	김숙현	노필원	박준모	신종욱	윤광석	이옥희	이호일	조장래	허맹수	
권영배	김순업	류시근	박창근	신철승	윤남선	이용근	이훈	조정숙	하태길	인천경실련
권영진	김순업	마상호	박창근	심관보	윤남용	이용만	임명원	조종성	하현홍	
권영훈	김연희	마석홍	박창렬	심규대	윤상미	이용연	임선미	조철현	한덕이	강경하
권오섭	김영근	마석홍	박태문	심형모	윤수영	이우정	임성규	조춘순	한돈집	강덕우
권오주	김영숙	마세진	박태문	안병운	윤수영	이운용	임성식	조택선	한만준	강명선

강명수	김상열	김하운	방호운	여승철	이연숙	전용성	최인용	강원균	이정	이상길	김신순
강상근	김선홍	김학무	배성수	오경환	이영권	정기호	최일동	강유정	이현희	이성실	김양보
강석	김설	김효정	배승휘	오광민	이용우	정낙식	최재혁	강창수	임규삼		김영남
강석철	김성수	김희연	배철현	오영선	이용준	정두용	최정자	강현민	임성진		김영희
강옥엽	김성웅	나종팔	백동수	오월명	이원구	정석환	최정철	강호수	장석재	제주경실련	김우준
강정호	김수자	남봉현	백민섭	오원선	이의재	정선오	최준혁	곽이구	전기환		김원규
강태경	김승남	남세종	백완근	오진우	이일희	정승연	최찬용	국승철	정세윤	강경희	김은숙
고덕봉	김승희	남지승	변성준	유동현	이재학	정연중	최현	권미경	조선환	강봉석	김익태
고성일	김시철	남창섭	변태수	유승분	이정립	정우석	최혜자	김만식	조찬환	강시영	김인영
고재성	김연옥	노국진	서경옥	유진성	이정윤	정재영	한기남	김병석	주재호	강영준	김재경
고정규	김연옥	노승환	서부길	유홍성	이종일	정재윤	한만송	김수환	진정현	강유심	김종훈
구자길	김영구	도지성	서용성	윤관옥	이주영	정진오	함지현	김용권	채주석	강인창	김창기
권경자	김영국	류병희	서태원	윤대기	이주용	정창훈	함창학	김용휘	천상덕	강정임	김창연
권남구	김영옥	류재홍	서해안	윤동구	이준한	정철	허도병	김창기	최낙용	강지용	김철수
권대현	김영준	명선목	성기건	윤명철	이지영	정화석	허명한	김중원	최동성	강창균	박미현
권오연	김옥산	명창준	성덕규	윤미선	이진준	정희윤	허우범	김주희	최문희	강태운	박승훈
권옥한	김용구	목동훈	성용원	윤지의	이찬우	조광희	허주형	김형식	최수진	고병기	박재완
권정호	김용미	문상범	손병옥	윤천준	이창훈	조동암	허창희	라형연	최요일	고봉수	변성언
김갑봉	김용민	민근홍	송경희	윤호	이철준	조영희	홍기석	박규만	최정일	고상봉	변정철
김경태	김우경	박경호	송문성	유희택	이충우	조용화	홍욱표	박영진	최진희	고석건	부상원
김경호	김원화	박명희	송원덕	이경우	이한용	조현경	홍인성	박상민	한병규	고성봉	송석언
김계원	김윤식	박상찬	송인선	이경진	이행숙	주춘식	황규철	박호민	홍순필	고영수	송승호
김관호	김윤태	박상희	송태영	이귀복	이현경	지석	황덕성	성치원	황병해	고영식	안영철
김광업	김은영	박석민	신국철	이근영	이현준	진혁화	황석광	송악용		고정훈	양백윤
김광호	김용철	박선홍	신병철	이기태	이형구	차경열	황수연	안수현		고태식	양복심
김근영	김인수	박성인	신은철	이길성	이후삼	차광윤	황용선	안정훈	정읍경실련	김강문	양봉석
김남돈	김재식	박수영	신중환	이도희	임승관	차동열	황제우	엄상섭		김경용	양시경
김도영	김재영	박순옥	심연삼	이동기	임재훈	차득기	(주)디씨알이	오상현	강창조	김남혁	양효진
김동우	김종길	박옥희	심정순	이루다	임한택	최경훈	(주)진영이앤지-최춘옥	유창엽	김영진	김동욱	오승용
김동호	김종욱	박용해	심창선	이리라	임현준	최광용	(주)한성라인	윤영수	김용철	김동진	오영익
김두영	김종호	박윤수	심현창	이문의	임희숙	최광은	도영운수(주)	윤태영	김은정	김명준	오정훈
김명석	김종화	박준용	심현열	이범열	임희진	최금행	법원인민복지협(주)인민복지협	은영주	김을수	김봉철	오종선
김무룡	김주형	박찬화	안동찬	이병기	장일진	최두영	사단법인 인천북해농협	은용우	김택술	김석	유덕현
김미경	김준우	박한정	안병준	이병철	장정민	최병길	씨제이(주)씨제이	이민호	김현	김선호	유두석
김미영	김진희	박현숙	안재균	이상동	정조영	최상희	에스지이(주)	이보향	박래수	김성수	이성호
김병우	김창선	박형수	안희섭	이상영	전동춘	최선애		이승현	박영민	김세검	이영준
김병철	김창우	박형중	양익만	이상훈	전무수	최성원		이영식	송민수	김수연	임숙자
김상길	김태호	박흥기	양희석	이성한	전성식	최성을	전주경실련	이정춘	유사현	김승필	임정현
김상섭	김태훈	박흥열	엄연주	이에경	전영진	최성진		이점수	이광호	김신숙	장성욱



장원석	김봉미	안주형	장재식	고속남	김길후	김영란	김종철	남성욱	박남순	반영운
장정훈	김상철	양경모	전옥균	고영구	김남균	김영민	김종태	남윤빈	박명원	반주현
정상철	김수용	양승조	전종한	곽규은	김남진	김영배	김종태	남종순	박문희	방현철
조문수	김연	엄금자	정관순	곽덕신	김대광	김영수	김주복	노근호	박미영	배병기
조시중	김영호	오세훈	정구봉	곽승호	김대웅	김영식	김준년	노만균	박범혁	배봉준
차순례	김용진	오수균	정미영	구남휘	김대중	김영재	김준봉	노재량	박석현	백미경
채호진	김재완	오승화	정병인	구병희	김대환	김영철	김준수	노진호	박성순	백승협
한남석	김종우	오인철	정성진	구안서	김동수	김영태	김준태	도경민	박성호	변만수
한용환	김진태	유영길	정진선	구인숙	김동암	김영호	김지연	도선봉	박세복	변민수
허정아	김철수	유영진	조영주	권경미	김동욱	김영환	김진식	도승기	박세웅	변상호
현경호	김태영	유재영	조하심	권기승	김동일	김영환	김진철	라운애	박연수	변성민
현계담	김태호	유진영	최석남	권미경	김동진	김영희	김창석	류규식	박연숙	변익수
현미영	김행조	윤광희	최장은	권성안	김두호	김예성	김천식	류근모	박영미	변장섭
현성근	김혜영	윤권중	하종률	권수복	김말숙	김용규	김춘희	류근윤	박원희	변필섭
현종철	김홍철	윤예숙	한문식	권순택	김명수	김용덕	김태성	류대현	박용연	봉원진
현창석	김효실	윤일규	한형규	권영기	김미숙	김용석	김태성	류덕환	박은경	봉윤근
홍기홍	나이란	윤정섭	함세영	권영희	김미연	김용태	김태희	류승수	박익규	서건석
홍서희	노덕우	이경주	허종일	권오건	김미정	김용학	김평환	류연욱	박인숙	서길용
홍성화	노순식	이계환	황규훈	권태성	김민호	김용규	김필제	류용걸	박인자	서미화
황경수	류임상	이명근	황종현	권혁훈	김병우	김원식	김학구	류우열	박인환	서완석
황병철	류지현	이병덕	황천순	김갑용	김병의	김유호	김학실	류재욱	박재경	서정남
맹창호	이상일	내일시스템(주)	김강일	김봉주	김윤모	김한솔	김현상	류재형	박재관	서준철
명진아	이상춘		김건도	김상무	김윤정	김현상	류지봉	박재익	석명용	
천안아산경실련	박동수	이서영		김건일	김상수	김은옥	김현주	류진호	박정연	선종열
	박미경	이선열	청주경실련	김경자	김선영	김웅철	김현진	류찬걸	박정환	선지연
강민숙	박민숙	이수현		김경자	김선희	김인숙	김형규	류현숙	박종국	설경철
강용봉	박민자	이순곤	강민오	김경호	김성수	김인자	김형우	마재량	박종룡	성기남
강은선	박복연	이승열	강병용	김계옥	김성식	김일경	김혜숙	맹석주	박종명	성창기
강태윤	박상면	이원자	강병호	김관식	김성중	김일복	김호숙	맹현숙	박종을	성환용
강희두	박종갑	이재천	강석형	김광남	김성천	김재복	김호일	명정희	박지영	소순창
고영술	박종복	이점순	강성래	김광복	김성호	김재숙	김홍구	문종극	박진우	손윤희
구자형	박태서	이종필	강성식	김광성	김성희	김재춘	김환국	문희창	박철규	손정훈
금명기	백우현	이종호	강승구	김광직	김승일	김재학	김황래	민경억	박철석	손효진
김경은	복아영	이철호	강은희	김광희	김수열	김정문	김효일	민선희	박철완	손희준
김길년	소삼영	이혜린	강진성	김교선	김수환	김정웅	김희수	민승기	박해순	송광희
김명호	신대식	임승안	강현구	김규설	김애영	김종구	김희숙	민청식	박현순	송미애
김문수	신동현	장기수	강호승	김규식	김양식	김종기	김희정	박관주	박호표	송선호
김미경	신영호	장순이	경준용	김규원	김연식	김종성	나채경	박광수	박희분	송유정
김미수	신영철	장원철	고상돈	김기영	김영근	김종철	남기상	박기환	박희자	송은숙

송일근	안은정	오영필	유환철	이명순	이인우	이항숙	장혜원	정일기	주서택	하옥란
송재구	안정현	오윤주	육미선	이명호	이일만	이현미	장홍래	정일택	주재구	하태종
송재봉	안종태	오재만	육종길	이명훈	이일우	이현수	장홍원	정장영	주창백	한범덕
송재창	안창만	오제세	윤건영	이미경	이장희	이현식	전경아	정재량	지동규	한상화
송태성	안창현	오종영	윤관수	이미순	이재덕	이현주	전광호	정지성	지유석	한성원
송태화	안태희	오준영	윤병선	이민영	이재숙	이형각	전금희	정지영	진종현	한승환
송혜근	양계인	오창근	윤병희	이범석	이재영	이혜정	전년규	정지영	차은녀	한연수
송효현	양기정	오태경	윤석위	이병관	이재영	이혜진	전동기	정진아	채희관	한영선
신경철	양기춘	오태진	윤송현	이병호	이재원	이혜진	전병선	정진원	최각규	한원영
신규식	양미선	오훈영	윤여일	이복순	이재은	이화련	전성희	정진하	최경천	한인섭
신동선	양승주	우상동	윤정수	이상규	이재춘	이효숙	전용렬	정철	최경호	한종설
신동예	양영순	우장명	윤진현	이상식	이재현	임건철	전용표	정중선	최맹섭	함명욱
신명섭	양원철	유경훈	윤찬열	이상정	이정규	임근수	전우석	정태진	최상영	함종철
신명수	양찬섭	유광선	윤태한	이석구	이정석	임기중	전창해	조경주	최상천	함창모
신미미	엄경출	유광식	윤한식	이석호	이정수	임노열	전형천	조경주	최상희	허석렬
신성길	엄승용	유국열	윤현우	이석희	이정아	임동현	전희택	조광진	최선희	허성만
신성일	여명수	유근수	윤호영	이선미	이정연	임미애	정길재	조규완	최성희	허영
신승주	연규식	유미숙	이기빈	이선순	이정협	임병락	정란희	조규호	최영세	허창원
신영창	연규용	유민상	이건철	이선우	이종수	임성총	정문섭	조동순	최영중	현상주
신영희	연방희	유민채	이경수	이성우	이종실	임승빈	정미영	조동욱	최용찬	현진
신용재	연영규	유선우	이경순	이승애	이종윤	임용현	정미화	조상현	최우식	형석임
신용한	연영태	유성훈	이경희	이수복	이종한	임은정	정병숙	조성구	최운침	홍강희
신의수	연인하	유순영	이광식	이수영	이주봉	임종승	정상섭	조성오	최윤정	홍경표
신인호	연철흠	유승덕	이광용	이수한	이주선	임차남	정상신	조수중	최은실	홍성학
신철영	염경수	유승주	이광희	이순남	이주형	임한빈	정상완	조승연	최익완	홍성학
신태경	염우	유시송	이귀숙	이순정	이준수	임한수	정성래	조영화	최종문	홍승표
신태운	염은식	유영경	이귀형	이순호	이준희	임현경	정성희	조용숙	최종예	홍우표
신헌규	오경숙	유영숙	이규선	이승배	이종섭	임형요	정세영	조원주	최종익	홍응표
신헌식	오경아	유영아	이기정	이승우	이종현	임희영	정수창	조윤행	최종현	홍호승
신희숙	오명진	유영주	이길재	이승준	이종훈	장경석	정순배	조은애	최주환	황경선
심규석	오명환	유응모	이길환	이승준	이지숙	장기숙	정연경	조을선	최진욱	황경수
심서현	오미정	유재근	이대응	이승화	이지영	장남운	정영래	조일원	최진안	황락훈
심수영	오병건	유재남	이도영	이연옥	이차영	장동대	정영섭	조정식	최종진	황선건
심영미	오석송	유재일	이돈숙	이영로	이찬호	장병순	정영희	조종호	최태호	황성주
심재원	오세란	유창범	이동진	이영숙	이창록	장병희	정우성	조진희	최현숙	황희연
안건수	오세봉	유철호	이두영	이영진	이철중	장선배	정은경	조창영	최형도	(주)세일
안병대	오연경	유충욱	이만형	이영희	이철희	장시영	정은희	조항진	최호균	(주)중부컴퍼니
안영숙	오영미	유행열	이만희	이유정	이한례	장영건	정인수	조형규	표한홍	공공디자인이즘
안윤숙	오영애	유현덕	이명숙	이은숙	이혜승	장재봉	정인환	조형수	풍경섭	대신정기(해물)제동채주



두깨살림영농조합	청주생안김상점가성인회	권용범	김진상	박동운	석영기	윤재경	이승준	전성휘	최희수	황해숙
디자인포커스	청주생안김상점가성인회	김정숙	김찬중	박미현	손현기	윤재선	이원규	전호성	하상준	춘천상공회의소
리드산업개발(주)		김광배	김한택	박상규	손홍주	윤진현	이인섭	정의성	한희민	
서울고속(주)		김남철	남형우	박형일	신선철	윤학로	이희창	정휘돈	함태성	
씨투넷(주)	춘천경실련	김대영	박강욱	방명열	안호춘	이관행	임재선	조성모	허영준	
에듀크리안트		김석중	박경철	변용환	윤준형	이복연	전규호	조성자	허정현	
주식회사 태양커뮤니케이션	고광수	김영준	박대진	변좌용	유제원	이상섭	전근우	진창철	허종영	
주식회사 팜필리아	고태규	김정현	박도수	변지량	윤장혁	이석원	전만식	최규만	황덕호	

중앙경실련

기획연대국	02-766-5626	국장: 김삼수, 간사: 최윤석	(사)도시개혁센터	02-3673-2147	국장: 남은경
회원미디어국	02-766-5627-8	국장: 채준하, 간사: 이성윤	(사)경제정의연구소	02-3673-4144	국장: 권오인
30주년사업국	02-766-5629	국장: 김삼수, 팀장: 정택수, 간사: 윤은주	경실련통일협회	02-3673-2142	간사: 조성훈
정책실	02-3673-2141-2,5	실장: 윤철한, 팀장: 최예지, 간사: 조성훈, 서희원	시민권익센터	02-766-5624	실장: 윤철한
재벌개혁본부	02-3673-2143-4	국장: 권오인, 팀장: 오세형, 간사: 정호철, 김건희	소비자정의센터	02-766-5625	실장: 윤철한
부동산건설개혁본부	02-3673-2146	국장: 김성달, 팀장: 최승섭, 간사: 장성현	월간 경실련	02-766-5627	이사: 음유정, 김용재

지역경실련

지역경실련협의회 031-253-2266

광역시

광주경실련	062-528-4851	처장: 고영삼, 간사: 박항미
대구경실련	053-754-2533	처장: 조광현, 국장: 최은영
대전경실련	042-254-8060	처장: 이광진, 국장: 서해림
부산경실련	051-761-3951	사무처장: 도현영, 팀장: 안일규, 간사: 한가희, 김세윤
인천경실련	032-423-2950	처장: 김승원, 국장: 김성아, 팀장: 정지은

경기·강원권

경기도협의회	031-253-2265	
광명경실련	02-2614-1224	국장: 허정호, 부장: 최미영, 간사: 김정숙
군포경실련	031-392-3111	사무국장: 황은아
수원경실련	031-253-2266	국장: 유병욱, 간사: 문은정
안산경실련	031-402-6116	국장: 고선영, 간사: 허경미
김포경실련	031-997-0044	국장: 이종준, 간사: 황규숙
이천·여주경실련	031-635-7575	국장: 주상윤, 간사: 변정해
양평경실련	031-772-7199	국장: 여현정, 간사: 정혜진
강릉경실련	033-645-0828	처장: 심현섭
속초경실련	033-636-6631	국장: 김경석, 부장: 김미정
춘천경실련	033-241-9486	국장: 권용범, 간사: 오연옥

충청권

천안·아산경실련	041-552-2040	간사: 김지희
청주경실련	043-263-8006	처장: 최윤정, 국장: 이병관, 간사: 김미진

경상권

거제경실련	055-637-9451	사무국장: 배동주
구미경실련	054-453-1787	국장: 조근래

전라·제주권

순천경실련	061-751-9993	사무국장: 고선휘
여수경실련	061-643-2110	간사: 최진숙
목포경실련	061-283-4571	간사: 전원신
군산경실련	063-443-5733	간사: 서재숙
전주경실련	063-273-4903-4	국장: 최수진, 사무처장: 강형민, 간사: 고통우
정읍경실련	063-536-6225	국장: 김은정
제주경실련	064-726-2530	팀장: 김은숙

7월16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자신의 생계를 위해, 내 가족을 위해 '건디는' 곳이 직장입니다.
상사라는 명분으로,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있다는 권리로,
타인의 생계를 볼모 삼아 위협하는 짓거리가 직장은 물론 그 어느 곳에도 없길 바랍니다.